

정책연구보고서

#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2000. 6

제주발전연구원



# 목 차

I.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3
3. 연구 수행 방법 .....	4
II. 제주도 상징물의 지정 경위 .....	5
1. 제주도 상징물의 지정 .....	5
2.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1차 변경 논의 .....	7
3. 제주도 상징물 1차 조정 .....	8
4.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2차 변경 논의 .....	14
III.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	16
1. 도민 공모 .....	16
2. 전문가 의견 조사 .....	19
3. 전문가 포럼 .....	27
4. 인터넷 조사 .....	39
IV. 종합 의견 .....	46
1. 기존 제주상징물의 선정 경위와 문제점 .....	46
2.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결과 .....	49
V. 정책 제언 .....	60
부    록 .....	63
1. '99 도민 공모 결과 부문별 소수 의견 .....	65
2. '99 전문가 의견 조사 .....	70
3. 전문가 포럼 .....	76
4. 인터넷 조사 내용 .....	89
5. 상위 3순위 대상 상징물 해설 .....	91
6. 자치단체의 상징물 사례 조사 .....	105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가. 상징물 지정 추세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의 총화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의 특성을 자랑할 수 있는 상징 동·식물을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CI 개발을 통하여 지역 특산물의 홍보·산업진흥, 관광유인책을 활용하는 등 상징성 개발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적인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나. 상징물의 어원 및 의미

- 상징이란 말은 희랍어의 동사 ‘symballein’에서 유래된 것으로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sup>1)</sup>으로 대상물과 지역 주민과의 연결, 지역의 이미지와 외지인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 상징의 의미
  - 상징이란 관습적인 기호나 수동적인 이미지와 달리 모든 시각 대상이 갖는 의미의 표명(statement)임.
  - 상징은 극히 가변적이고 다의적이어서 여러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며, 본질적으로 모호함.
  - 상징은 종합화 기능이 있어 복잡한 의미를 특정의 대상이나 행동으로 압축하고, 그 사물 자체의 한계를 넘어 전체와 일치시키고 나아가 전체를 제시하는 힘이 있음.

---

1) 李揆穆, 「都市와 象徴」, 일지사, 1992.

## 다. 연구 배경

### ○ 제주도 지정 상징물

- 제주도는 1973년 11월 9일 나무, 꽃, 새, 색 부문의 상징물로 녹나무, 영산홍, 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을 지정하여 활용하여 오던 중
- '89년 도정자문위원회에서 변경 논의가 있었고, '96년 제주도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데 이에 걸맞는 참신한 이미지 부각 및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일부 변경하여 녹나무, 제주참꽃,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으로 정함.
- 제주도 지정 상징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부 문	상징물	의 미
나 무	녹 나 무	녹나무는 제주도민의 특성과 기질과 신앙을 상징한다. 각박한 땅이나 바위틈에서도 잘 자라는 강인한 이 나무는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의 근면, 소박, 인내심을 상징한다. 언제나 그 싱싱함을 잃지 않는 상록수이고 봄에 새 잎이 날 때 붉은 꽃처럼 화려함은 도민의 희망과 정열과 무궁한 번영의 기상을 보여준다. 나무와 잎에서 풍기는 독특한 향기는 도민의 높은 품위와 슬기롭고 풍부한 정감을 보여준다. 짙은 향기가 사귀를 몰아낸다는 전설은 부정과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의지와 실천을 앞세워 살아온 제주도민의 얼이 깃든 신앙의 나무이다.
꽃	참 꽃	숲속에서 타는 듯한 붉은 꽃을 무더기로 피우고 있는 참꽃은 제주도민의 불타는 의욕과 응결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잎은 가지 끝에 세 잎씩 운생하여 제주의 자랑인 삼다, 삼무, 삼보, 삼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 잎과 다섯 꽃잎이 규칙적으로 족생(簇生)하여 삼삼오오 즉, 도민들의 단결과 질서, 평화로운 발전을 향한 밝은 전진적 기풍을 상징한다.

부 문	상징물	의 미
새	제주큰오색 딱따구리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활엽수의 노거수 교목림에 많으며 제주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소형이며 암색이다. 머리와 등면은 큰오색딱따구리와 거의 같으나 다만 아래 등과 허리의 백색이 적다. 그리고 아래 면에 세로난 무늬가 넓고 바깥쪽 꼬리깃에 완전한 흑색띠가 3줄 있다. 그러나 턱 아래 가슴의 바탕색은 연한 황백색이며 산림해충을 구제하는데 유익하다.
색	파 란 색	제주도는 온통 푸르다. 푸른 바다, 푸른 산, 푸른 하늘과 더불어 사는 도민의 푸른 마음을 나타내어 불멸, 번영, 진취,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주) 제주도 당국이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내용임 .

○ **제주도의회 제주도 상징물 변경 촉구결의안 채택**

- 제주도의회는 '98년 2월 13일 제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상징물은 제주도 고유 문화나 도민과의 친근감에 대한 고려없이 지정되었고, 상징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주도 상징물 변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제주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

-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결의에 따라 '98년 4. 18 나무, 꽃, 새, 색에 대한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를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함에 따라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됨.

## 2. 연구 목적

-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상징성을 재조사 연구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라 제주도 상징물의 인지도와 적정성 등을 연구하여 제주도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징물을 탐색하고자 함.
-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상징물 외에 도민의 정서에 맞는 상징동물을 추가로 선정하고자 함.

### 3. 연구 수행 방법

#### 가. 사례 조사

- 국·내외 자치단체의 주요 상징물
- 상징물의 선정 배경
- 상징물 활용 사례

#### 나. 제주도 상징물 지정 및 조정 경위

- 상징물 선정 경위
- 상징물 선정 기구
- 공모, 여론조사 및 의견 수렴 사항

#### 다.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 의견 조사 및 수렴
  - 도민 공모
  - 전문가 의견 조사
  - 전문가 포럼
  - 인터넷 조사
- 바람직한 제주 상징물 선정
  - 1단계 : 각 조사 결과별로 상위 3순위 상징 대상물 결정
  - 2단계 : 1단계 조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부문별 3순위를 결정.
  - 3단계 : 선정원칙과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최종 상징물 선정



## II. 제주도 상징물의 지정 경위

### 1. 제주도 상징물의 지정

#### 가. 최초 지정 제주도 상징물

구 분	나 무(木)	꽃(花)	새(鳥)	색(色)
상 징 물	녹나무	영산홍	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선 정 일	'73. 11. 9	'73. 11. 9	'73. 11. 9	'73. 11. 9
선정방법	공 모	공 모	자 체	공 모
응모건수	15종 54건	17종 51건	-	12종 51건

#### 나. 상징물 지정 목적

우리도의 고유한 전통과 기상, 무궁한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각각 선정하여 대내외적인 도의 표상으로 삼기 위함.

#### 다. 상징물 지정 경위

- '73. 8. 3 상징물 선정 공모(기한 : 8. 20) → 17건 응모
- '73. 8. 3 1차 공모 연장(기한 : 9. 15) → 25건 응모
- '73. 9. 17 2차 공모 연장(기한 : 10. 15) → 16건 응모  
총 58건 응모
- '73. 10. 17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 위촉
- '73. 10. 26 상징물 1차 심사  
나무 : 구상나무, 녹나무  
꽃 : 산철쭉, 영산홍(참꽃)  
색 : 파란색, 청색
- '73. 11. 5 상징물 선정 최종 심사  
심사시 이승택 도지사의 의사 표명(녹나무, 영산홍, 파란색)  
심사위원 의견 일치

○ '73. 11. 9 제주도 상징물 지정

나무 : 녹나무

꽃 : 영산홍

색 : 파란색

새 : 큰오색딱따구리

※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13명)

위원장 : 최병한(제주도 부지사)

위 원 : 양중해(제주대, 국문학)

정희준(제주대, 화훼 원예학)

박정덕(제주대, 식물학)

문기선(제주대, 미술)

부종휴(제주도지방문화재 위원, 식물학)

홍정표(중앙문화재 위원, 화훼·고건축)

김행옥(제주농고 교장)

김인학(제주도농촌진흥원장)

홍주표(제주도 기획관리실장)

강경주(제주도 총무국장)

이군보(제주도 산업국장)

홍성립(제주도 개발국장)

**다. 문제점<sup>2)</sup>**

○ 도민여론 수렴 부족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나 응모자가 58명에 불과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지정함.

---

2) 상징물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제주도 지정 최초 상징물은 지정되고 난 후에도 도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하여 '89년에는 상징물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도정자문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상징새의 경우 도민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 선정함으로써 도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전문가 참여 미약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전문가 8인의 전문 영역은 꽃, 나무, 새, 색 분야의 한정된 전문가 외에는 국문학 분야 1명만 참여하였고, 도민의 정서, 향토사 등 인문 사회적 요인을 대변할 전문인은 참여되지 않았음.

## 2.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1차 변경 논의

○ '89. 7. 12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회 건의

- 건 의 자 : 송봉규 위원
- 건의내용 : '73년도에 지정한 제주도의 상징물(꽃, 나무, 새) 변경 검토
  - 꽃 : 영산홍 → 제주한란
  - 나무 : 녹나무 → 굴무기나무(느티나무)
  - 새 : 큰오색딱따구리 → 꿩
- 소관부서 : 기획담당관실
- 회시내용 : 제주도의 상징인 녹나무, 영산홍은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선정되었으며, 큰오색딱따구리는 공개 모집의 선정 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나 충분한 의견과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고, 기 지정된 상징물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한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

### 3. 제주도 상징물 1차 조정

#### 가. 배경

기 선정된 제주도의 상징물이 제주도에 대한 대표성 및 도민 정서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제주도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제 2도제」 개막과 「위대한 제주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변경 선정하기 위함.

#### 나. 조정 경위

##### 1) 기존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와 적합성 여부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 조사기간 : '96.3.19~3.20
- 조사대상 : 무작위 추출 990명
- 조사대상 : 전화설문, 한울리서치 프로그램 이용
- 조사결과
  - 나무 : 녹나무(적당 59.1%, 부적당 18.8%, 잘모름 22%)
  - 꽃 : 영산홍(적당 35.3%, 부적당 28.9%, 잘모름 35.8%)
  - 새 : 큰오색딱따구리(적당 36.5%, 부적당 25.7%, 잘모름 37.7%)
  - 색 : 파란색(적당 74.9%, 부적당 12.3%, 잘모름 12.8%)

##### 2) 상징물 선정 도민 공모

- 공모기간 : '96.4.27~5.16
- 공모대상 : 제주도민
- 공모방법 : 3개 지방 신문에 공모 광고
- 조사결과<sup>3)</sup> : 응모자 → 199명 761건
  - 나무 : 35종 489건 (왕벚나무 33, 감귤나무 30, 동백나무 18, 팽나무 15,

3) 각 부문별 상징 대상물 뒤에 있는 숫자는 해당 상징물에 대한 응모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소나무 15, 구상나무 14, 기타)

꽃 : 129종 189건 (유채꽃 87, 철쭉 18, 한란 15, 왕벚꽃 11, 동백꽃 9, 문주란 5, 기타)

새 : 36종 180건 (평 51, 동박새 24, 참새 16, 비둘기 15, 휘파람새 7, 제비 6, 기타)

색 : 24종 186건 (노란색 55, 파란색 34, 녹색 19, 갈색 14, 청색 12, 기타)

### 3)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 일시 : '96. 5. 30
- 내용 : 도민 응모 결과에 대하여 나무, 꽃, 새, 색을 3순위씩 결정하고, 도민 여론조사 등 의견 집약 후 2차 심의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구분	나무	꽃	새	색
1순위	왕벚나무	유채꽃	평	노란색
2순위	구상나무	참 꽃	제비	파란색
3순위	녹 나 무	억새꽃	-	초록색

### 4) 도민의견 조사

- 조사방법 :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의 상징물 선정 순위에 의한 도민 여론 조사
- 조사기간 : '96.6.11~6.15
- 조사대상 : 읍·면·동 민원실 민원인 대상 설문 조사(인구비례 무작위 추출 1000명 대상 → 응답자 987명).
- 조사결과

구분	나무	꽃	새	색
1순위	왕벚나무(45.0)	유채꽃(64.8)	평 (75.4)	초록색(43.7)
2순위	구상나무(30.3)	참 꽃(18.5)	제 비(18.3)	노란색(32.5)
3순위	녹 나 무(22.5)	억새꽃(14.1)	-	파란색(22.3)
4순위	기 타(2.2)	기 타(2.2)	기 타(6.3)	기 타(1.5)

( )안은 각 부문별 응답 비율임.

**5) 제주도청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

- 조사방법 :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의 상징물 선정 순위에 의한 공무원 의견조사
- 조사기간 : '96.6.29~7.1
- 조사대상 : 실·과·사업소별 정원 비례 500명 대상 → 응답자 472명.
- 조사결과

구분	나무	꽃	새	색
1순위	왕벚나무(38.1)	유채꽃(47.1)	꿩 (70.3)	초록색(43.4)
2순위	구상나무(31.5)	참 꽃(31.0)	제 비(13.2)	노란색(32.5)
3순위	녹 나 무(25.7)	억새꽃(16.5)	-	파란색(22.8)
4순위	기 타 (4.7)	기 타 (5.4)	기 타(16.5)	기 타 (1.3)

( )안은 응답 비율임.

**6) 도정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 '96. 7. 2
- 회의결과

나무 : 왕벚나무가 제주도 자생이 확실하다면 1순위인 왕벚나무로 정하기로 의견 조정.

꽃 : 유채꽃이 작물이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 지정된 「영산홍」을 표준어인 「참꽃」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

새 : 꿩은 수렵 대상이고 미식가의 식용 대상이므로 상징물로 지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큰오색딱따구리가 일반도민들에게 잘 보이지 않다고 하나 한라산 어리목, 관음사 등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제주도의 텃새이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

색 : 색은 노란색 보다는 파란색이나 초록색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 7)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 1996. 7.
- 회의결과

나무 : 나무는 왕벚나무가 공모 결과 건수(189건중 33건)나 여론조사 결과(45%)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도로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자생 왕벚나무가 발견되고 있으나 일본 국화인 벚꽃(사쿠라)과의 차별화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상징물인 녹나무로 지정하기로 결정.

꽃 : 꽃은 유채꽃이 응모 결과 건수(189건중 87건)나 여론 조사 결과 (64%)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유채꽃 자체가 화목 류나 초화류가 아닌 특용작물로 앞으로 재배 형태가 바뀔 경우, 이를 상징 꽃으로 지정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지방언론의 지적과 도정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상징물인 영산홍을 학명에 맞게 참꽃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새 : 새는 꿩이 공모 결과 건수(180건중 51건)나 여론 조사 결과(75%)가 가장 많았으나 꿩은 수렵 대상이고 미식가의 식용으로 즐겨 찾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상징물인 큰오색딱따구리를 학명에 맞게 제주 큰오색딱따구리로 지정하기로 결정.

색 : 색은 노란색이 공모 결과 건수(186건중 55건)가 많았고 초록색이 여론 조사 결과(43%)가 많았지만 파란색도 응모 건수(34건)나 여론 조사 결과(22%) 상당수가 나왔고, 4면이 바다인 제주상징에 파란색으로 기존 상징색을 그대로 지정하기로 결정.

## 8) 제주도 상징물 조정 결정

- 일시 : '96. 7. 12
- 조정 결과

구 분	나 무(木)	꽃(花)	새(鳥)	색(色)
기 존 안	녹나무	영산홍	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조 정 안	녹나무	참 꽃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변 경 일	-	'96. 7. 12	'96. 7. 12	-

주) 참꽃의 경우 제주분홍참꽃이라고도 함

### ※ 상징물 지정 심의위원회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위 원 : 도의원(3) : 이영길, 오충남, 박희수

교 수(4) : 박행신(제주대, 조류학)

김문홍(제주대, 식물학)

소인섭(제주대, 원예학)

강동연(제주대, 미술학)

행 정(1) : 임승훈(환경국장)

## 다. 문제점

- 도민여론 수렴 부족
  - 신문 광고를 통하여 도민 의견을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199명으로 폭넓은 도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함.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폭넓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상의 문제

심사위원 중 도민의 정서나 향토사 등 인문 사회적 요인을 대변할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아 최초 상징물을 지정할 때와 동일한 문제를 내포함.

심사위원회 1차 심사에서 도민 공모 결과 나타난 상위 6순위 안에 해당되지 않았던 녹나무, 참꽃, 억새꽃 등을 해당 부문 3순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민 공모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 상징 새의 선정 문제

최초 지정 상징물을 바꾸게 된 구체적 동기중의 하나는 큰오색딱따구리였음. 각종 조사 과정에서 큰오색딱따구리에 대한 선호도가 적었으며 도민 공모, 심사위원 1차 심사, 여론 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도민조정위원회 및 심사위원 2차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학명에 맞게 기존의 큰오색딱따구리를 제주큰오색딱따구리로 명칭만 수정하여 그대로 정함.

• 상징 색의 선정 문제

상징 색의 경우 파란색은 도민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초록색, 노란색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음. 그리고 각각의 조사에서 초록색 비율(43.7 %, 43.4%)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22.3%, 22.8%)을 특별한 이유없이 순위를 무시하고 지정함.

따라서 제주도 상징물을 변경 지정하면서 최초 상징물을 지정할 때 안고 있던 문제 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동일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상징물 변경에 대한 요인이 계속 남아 있음.

## 4.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2차 변경 논의

### 가. 배경

#### 1) 「제주도상징물변경촉구결의안」 채택

##### ○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채택

- '98. 2. 13 제주도의회 제 13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김영훈 의원의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주도 상징물변경촉구결의안」 채택.
- '98. 2. 14 제주도 상징물 변경 촉구 결의문 이송(의사 13130-57)

### 제주도 상징물 변경 촉구 결의안

우리도는 고유의 전통과 도민의 기상, 그리고 미래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나무, 꽃, 새, 색을 도의 상징물로 선정하여 대내외에 공표, 활용하여 왔음.

그러나 현재 우리도의 상징물로 지정된 녹나무, 참꽃,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등이 제주도의 고유문화나 도민과의 친근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정되어 상징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여론임.

특히 일부 상징물인 경우 인지도가 대단히 낮은 종류로 지정되어 있어 도민들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지정한 행정당국과 동·식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음.

따라서 제주도의 상징물은 역사성과 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도민들과 친근하면서도 자부심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위 지정된 상징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내외에 도민의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촉구함.

1998. 2. 13

제 주 도 의 회 의 원 일 동

○ 제주도 상징물 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기획 01600-236)

- '98. 2. 18 제주도의회 의사 13130-57호 관련 회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상징조형물 연구” 계획에 포함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는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2)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 의뢰

- 일 시 : '98. 4. 18

- 의뢰문 :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의뢰(기획 01600-236)

제주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주도 상징물은 역사성과 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도민들과 친근하면서도 자부심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위 지정된 상징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내외에 도민의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지정할 것”을 건의해 음에 따라 귀 연구원에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 중인 제주 상징조형물 개발 연구에 제주의 상징인 나무, 꽃, 새, 색에 대한 상징성 연구도 포함시켜 연구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Ⅲ.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 1. 도민 공모

##### 가. 공모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99. 6. 23 ~ '99. 7. 15
- 공모방법 : 신문 및 방송 광고를 통한 도민 공모
  - 신문 : 제주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타임스(각각 2회 광고)
  - 방송 : MBC 라디오, 22일간 1일 5회 이상('99. 6. 24 ~ '99. 7. 15)

##### 나. 응모자 및 응모 의견

- 응답자 수는 나무 1,610명, 꽃 1,680명, 새 1,440명, 색 1,693명이었음.
- 기존에 지정한 상징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새롭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현행 유지(8.9~27.2%)보다는 변경을 원하는 응답(72.8~91.1%)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 기존 상징물 외에 새로운 동물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응답자는 총 1,031명이었음<sup>4)</sup>.

##### <응모자 수 및 상징물 변경안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비율)

구분	나무	꽃	새	색	동물
총응모자수	1,610(100)	1,680(100)	1,440(100)	1,693(100)	1,031
종 류(건)	65	67	70	40	60
현행유지	197(12.2)	149(8.9)	392(27.2)	430(25.4)	추가 조사
변 경	1,413(87.8)	1,531(91.1)	1,048(72.8)	1,263(74.6)	

( )의 숫자는 해당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임.

4) 동물에 대한 응답자수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도민 공모 과정에서 각급 학교로 보내는 협조 공문에 상징물과 관련하여 나무, 꽃, 새, 색에 대한 내용만 있고 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임.

## 다. 응모 결과

### ○ 나무

- 감귤나무(25.5%), 소나무(14.6%), 녹나무(12.2%), 왕벚나무(11.8%), 동백나무(6.2%) 순으로 나타났음.
- 이중 왕벚나무는 '96년 상징물 변경과 관련하여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도민 여론조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1순위에 해당한 바 있으나 상징물 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일본 국화인 벚꽃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된 바 있음.
- 녹나무는 '73.11.9 제주도 상징나무로 지정되었고, '96년 도민공모를 비롯한 각종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본 벚꽃과의 차별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녹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음. 본 조사에서 감귤나무 소나무에 이어 3위에 해당됨.
- 감귤나무, 소나무, 동백나무는 96년 도민 공모(199명 응모) 결과 각각 2위, 5위, 3위에 해당된 바 있음

### ○ 꽃

- 유채꽃(49.6%), 철쭉(9.0%), 참꽃(8.9%), 제주한란(4.0%), 왕벚꽃(3.4%) 순으로 나타났음.
- '96년 도민 공모 결과(유채꽃 1위, 철쭉, 2위, 한란 3위, 왕벚꽃 4위)와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음. 다만 기존 상징물인 참꽃이 3순위에 해당하였음.
- '96년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유채꽃은 화목류나 초화류가 아닌 특용작물로서 앞으로 재배 형태가 바뀔 것을 고려하여 상징물 지정이 배제된 바 있음.

○ 새

- 제주큰오색딱따구리(27.2%), 꿩(17.6%), 참새(8.1%), 동박새(6.3%), 비둘기(6.1%) 순으로 나타났음.
- '73년 큰오색딱따구리로 도민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 지정 후 '96년 제주큰오색딱따구리로 조정되었으며, 다른 부문과 달리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많은 응답을 보인 새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본 조사에서 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1순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설문 내용 중 기존 상징물에 대한 안내를 토대로 응답한 결과로 해석됨.
- '96년 도민 공모 결과 꿩 1위, 동박새 2위, 참새 3위, 비둘기 4위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꿩의 경우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결과, 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였으나 꿩은 수렵대상이고 미식가의 식용으로 즐겨 찾는 점을 감안하여 배제된 바 있음.

○ 색

- 녹색(30.5%), 파란색(25.4%), 노란색(17.9%), 흰색(4.1%), 하늘색(3.5%) 순으로 나타났음.
- '73년 공모에서는 파란색, '96년 공모에서는 노란색이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96년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노란색, 도민 여론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초록색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나 기존 상징색인 파란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음.

○ 동물

- 상징동물을 지정하는 경우에 노루, 조랑말, 사슴, 돼지, 옥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5.3%를 차지하고 있어

꽃 부분의 유채꽃(49.6%) 다음으로 선호도가 매우 높음.

< 도민 공모 결과 >

순위	나무	꽃	새	색	동물
1	감귤나무(25.5)	유 채 꽃(49.6)	제주큰오색딱다구리(27.2)	녹 색(30.5)	노 루(45.3)
2	소 나 무(14.6)	철 쪽(9.0)	평 (17.6)	파란색(25.4)	조랑말(25.4)
3	녹 나 무(12.2)	제주참꽃(8.9)	참 새 (8.1)	노란색(17.9)	사 슴 (7.7)
4	왕벚나무(11.8)	제주한란(4.0)	동 박 새 (6.3)	흰 색 (4.1)	돼 지 (5.3)
5	동백나무 (6.2)	왕 벚 꽃(3.4)	비 돌 기 (6.1)	하늘색 (3.5)	옥 돔 (1.1)
6	향 나 무 (4.0)	감 귤 꽃(3.4)	까 치 (6.0)	갈 색 (2.1)	평 (0.9)
7	비자나무 (4.0)	문 주 란(3.4)	까 마 귀 (5.8)	주황색 (2.1)	돌고래 (0.8)
8	구상나무 (3.7)	동 백 꽃(2.1)	제 비 (4.4)	빨간색 (1.7)	소 (0.8)
9	팽 나 무 (3.0)	억 새 꽃(2.0)	원 양 (2.3)	청 색 (1.4)	토 끼 (0.8)
10	참 나 무 (2.0)	진 달 래(1.5)	갈 매 기 (2.1)	오렌지색(1.1)	개 (0.7)
기타	느티나무 외(13.0)	수선화외 (12.7)	청둥오리외 (14.1)	꽃색외 (10.2)	까 마 귀 외 (11.2)

주 ( ) 안은 응모자중 부문별 해당 응답지의 비율(%)이며 10순위 이하는 그 내용을 <부록 1>에 수록하였음.

## 2. 전문가 의견 조사

### 가. 조사 기간 및 방법

- 조사기간 : '99. 11. 29 ~ 12. 10(12일간).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 및 우편 회수.

설문지 구성은 본 조사의 추진 경위 및 도민 공모결과 10순위까지 해당하는 나무, 꽃, 새, 색, 동물의 이름을 참고로 제시하였음.

조사 설문지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음.

## 나. 대상자 선정 및 응답자

### 1) 조사 대상자 선정<sup>5)</sup>

- 단체대표 37명, 학계 30명, 언론계 13명, 의회의원 8명, 공무원 12명 등 총 100명에게 설문지 직접 전달, 취지 설명 및 협조 요청
- 조사 대상자는 식물, 동물, 조류, 미술, 조형, 관광, 생태, 디자인 향토사학, 인류학, 디자인,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능, 종교, 지역 등을 통하여 가급적 전문 분야에 종사하면서 도민의 다양성을 최대한 함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응 답 자 : 83명(회수율 83.0%)

- 응답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문에 응답하고, 응답자의 자유 의사를 고려하여 우편 회수하였음.

## 다. 조사 결과<sup>6)</sup>

### 1) 제주도 지정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

- 제주도 지정 상징물은 무엇보다도 '제주도 고유 문화나 도민과 친근감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 '도민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순으로 응답하였음.
- '다른 지역과의 중복성', '신비로움', '외지인의 인지도' 등은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5) 전문가 조사 대상자는 <부록 2>와 같다.

6)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내용은 <부록 2>와 같다.



### <제주도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

(단위 : 명, %)

순위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	응답수	비율(%)
1	제주도민과 친근감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20.9
2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1	16.5
3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0	16.1
4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38	15.3
5	도민의 정서(역사·문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26	10.4
6	다른 지역의 상징물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4	9.6
7	신비로움이 있어야 한다	15	6.0
8	외지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	13	5.2
중복 응답수		249	100

주) 설문지에는 우선 순위대로 3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순서없이 ○표로 표시한 응답자가 많아 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복수의 응답비율로 순위를 정하였음.

#### 2) 기 지정 상징물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

- 나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8.1%가 바람직하게 지정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81.9%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다른 부문의 응답에 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0%가 바람직하게 지정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61.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0%가 바람직하게 지정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7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3) 상징동물 지정에 대한 의견

- 상징 동물의 추가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96.4%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보였음.

<현재 지정된 제주도 상징물의 적합성 여부>

(단위 : 명, %)

구분		총응답 자수	찬성		반대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나무	녹나무	83(100)	15	18.1	68	81.9
꽃	참 꽃	82(100)	32	39.0	50	61.0
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	82(100)	23	28.0	59	72.0
색	파란색	83(100)	32	38.6	51	61.4
동물	상징 동물 신규 지정	83(100)	80	96.4	3	3.6

4) 제주도 상징물의 우선 순위 및 선정 사유

< 전문가 조사 결과 >

(단위 : 명, %)

나무		꽃		새		색		동물	
느티나무	24(29.3)	참 꽃	32(39.0)	평	39(47.6)	녹 색	38(46.4)	노 루	47(59.5)
감귤나무	18(21.9)	유 채 꽃	20(24.4)	제주큰오색 딱따구리	23(28.0)	파 란 색	32(39.0)	조 랑 말	20(25.3)
녹 나 무	15(18.3)	왕 벗 꽃	8(9.8)	갈 매 기	6(7.4)	노 란 색	5(6.2)	백 룩	10(12.7)
왕벗나무	8(9.7)	한 란	5(6.1)	동 박 새	4(5.0)	갈 색	2(2.4)	노루+조랑말	1(1.3)
구상나무	4(5.0)	철 쪽	5(6.1)	까 마 귀	2(2.4)	하 늘 색	1(1.2)	기 타	1(1.3)
팽 나 무	4(5.0)	문 주 란	3(3.7)	비 둘 기	2(2.4)	청 색	1(1.2)		
동백나무	3(3.6)	억 새 꽃	3(3.7)	원 양	2(2.4)	암 청 색	1(1.2)		
비자나무	2(2.4)	수 선 화	2(2.4)	딱따구리	1(1.2)	주 황	1(1.2)		
기 타	4(5.0)	기 타	4(5.0)	기타	3(3.7)	기 타	1(1.2)		
계	82	계	82	계	82	계	82	계	79

## ○ 나무

### • 우선 순위

- 느티나무가 1순위를 차지하였음.
- 느티나무(29.3%), 감귤나무(21.9%), 녹나무(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느티나무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상징물 지정과 관련하여 각종 공모 및 조사과정에서 처음임.
- 멸구슬나무, 너도밤나무, 구실잣밤나무, 소나무 등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며, 대부분 다수의 응답을 보이는 나무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음.
- 녹나무의 경우 상징나무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81.9%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 지정 상징나무라는 점 때문에 상위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됨.

### • 선정 사유

- 느티나무 : 생명력이 강하며, 수형이 아름답고, 목재(고급가구, 고가구 등)의 활용가치가 높으며, 내구력이 강함(일명 굴무기나무라고 함).
- 감귤나무 : 제주 경제를 살리는 나무.
- 녹 나무 : 상록수이며 제주도에 자생.
- 왕벚나무 : 제주가 자생지이며, 벚꽃축제 등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성.
- 구상나무 : 한라산의 대표적인 나무.
- 팽 나무 : 시골에 노거수가 자라고 있고, 정자목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과 친숙함.
- 동백나무 : 제주인의 정서와 친근감이 배여 있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
- 비자나무 : 제주도가 자생지이며 약재로서의 활용 가치 및 역사성.

## ○ 꽃

### • 우선 순위

- 참꽃이 1순위를 차지하였음.
- 참꽃(39.0%), 유채꽃(24.4%), 왕벚꽃(9.8%), 한란(6.1%), 철쭉(6.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민 공모 결과와 비교할 때 상위 5순위까지의 수종은 일치하고 있으나 우선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유채꽃 1→2, 철쭉 2→5, 참꽃 3→1, 제주한란 4→4, 왕벚꽃 5→3)
- 도민 공모에서 10순위 안에 있던 것 중 감귤꽃과 진달래가 제외되었으며, 돌매화와 수선화가 본 조사에서 10위안에 포함되었음.
- 상징꽃을 지정할 때 1종이 아닌 2종류를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 • 선정 사유

- 참 꽃 : 꽃의 아름다움. 한라산과의 조화로움
- 유 채 꽃 : 제주의 실생활과 밀접하며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인위적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관광객이 선호함.
- 왕 벚 꽃 : 자생지이며, 축제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 제주한란 : 신비롭고 기품이 넘치는 이미지, 강한 적응력.
- 철 쭉 : 한라산과 연계.
- 문 주 란 : 제주도 토끼섬이 자생지이며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가치.
- 억 새 꽃 : 억센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견디어 온 제주민의 삶과 흡사.
- 수 선 화 : 꽃의 아름다움.

## ○ 새

### • 우선 순위

- 꿩이 1순위를 차지하였음.
- 꿩(47.6%), 제주큰오색딱따구리(28.0%), 갈매기(7.4%), 동박새(5.0%), 까마귀(2.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민공모에서는 꿩이 2순위를 차지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1순위에 해당되었으며, 5순위까지에 있었던 것 중에서 참새, 비둘기 대신에 갈매기가 포함되었음.
- 까마귀, 비둘기, 원앙, 제주섬참새, 직박구리, 제비가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 선정 사유

- 꿩 : 자태의 아름다움과 많이 분포하며, 수렵 대상, 식용 등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 높음.
- 제주큰오색딱따구리 : 제주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한 새임.
- 갈 매 기 : 사면이 바다이며 힘차게 비상하는 새.
- 동 박 새 : 도민 정서와 친숙하기 때문.
- 까 마 귀 : 바람까마귀의 낭만, 익조.
- 직박구리 : 털구슬나무와 친숙함.
- 비 들 기 : 평화롭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새.
- 원 앙 : 부부애 등 화합의 상징, 아름다움.
- 제주섬참새 : 육지부 참새와는 달리 척박한 제주의 자연환경 조건을 이겨낸 새임.
- 제 비 : 전설을 갖고 있음.

#### ○ 색

- 녹색이 1순위를 차지하였음.
- 녹색(46.4%), 파란색(39.0%), 노란색(6.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민공모 결과와 같은 순위임.
- 기타 다른 색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음.

- 선정 사유

- 녹색 : 청정한 제주 이미지(자연환경 등), 친환경 이미지.
- 파란색 : 청정한 바다와 하늘.
- 노란색 : 탐스럽게 영근 감귤, 그리고 유채꽃.
- 갈색 : 화려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상징하며, 제주의 전통 의복인 갈옷, 화산, 척박한 토양을 연상하게 함.

- 동물

- 우선 순위

- 노루가 1순위를 차지하였음.
- 노루(59.5%), 조랑말(25.3%), 백록(1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민 공모 결과 노루, 조랑말, 사슴(백록)과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음.

- 선정 사유

- 노루 : 한라산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조랑말 : 근대 제주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며, 제주의 이름과 어울림.
- 백록 : 도민들과 친숙하고 백록담과 연계하여 이야기 요소가 많음.

## 라. 홍보 및 활용 방안

- 도외·해외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 도민이 홍보 요원이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숙지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
- 뱃지, 엽서 등 관광 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에게 판매(이야기 요소 가미).
- 식물, 오름 등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
- 각종 간행물에 게재.
- 캐릭터 활용 펜시 상품 및 마스코트 개발 등 상징물 이용 상품화.
- 조형화하여 활용.

- 상징물의 애칭을 부여하여 다양하게 활용.
- 나무, 꽃, 새, 색, 동물 등 5종류의 상징물을 연계하여 관광상품 개발.
- 상징물을 주제로 한 이벤트 개최.
-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도민 홍보.
- 초등교육에서부터 활용.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상징물을 통합하여 활용할 때 홍보효과가 높을 것임.
- 상징물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및 관광 안내판 등에 소개.
- 나무, 꽃, 새, 색, 동물을 한가지로 통합 활용.
- 상징 나무, 꽃 거리 조성.

#### 마. 기타 참고 의견

-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향후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하여 차후에 이의 제기가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
- 제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함(역사성, 상품성 등 고려).
- 상징물은 역사성, 보존 가능성, 자원 가치성, 시대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함으로 전국적 또는 세계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소재가 선정되어야 함.
- 가장 제주도적인 것을 상징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전문가 포럼

####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0. 3. 20(15:00~18: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

## 나. 참석자

### ○ 전문가

강민수(제주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강영호(서양화가)

강태숙(제주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 교수)

김문홍(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1996년 상징물지정심의위원)

박행신(제주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1996년 상징물지정심의위원)

변성근(서북국제문화교류협회장)

소인섭(제주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1996년 상징물지정심의위원)

양중해(제주문화원장, 1973년 제주도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

오성찬(소설가)

홍순만(한라일보 논설고문)

### ○ 제주도청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강관보(정책기획담당)

### ○ 제주발전연구원

원 장 : 이문교(포럼 진행)

연구원 : 김태윤, 양덕순, 황경수, 정승훈, 신동일

## 다. 토론 내용<sup>7)</sup>

### 1) 상징물 선정 원칙에 대한 논의

전문가 포럼에서 상징물 선정 원칙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제시

---

7) 전문가 포럼에서 제시한 개인별 의견은 <부록 3>에 그 전문을 수록하였다.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상징물에 대한 찬·반 의견의 경우도 그러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는 것뿐이며, 여기에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다.



된 원칙을 동의하고, 보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내용음 다음과 같음.

○ **긍정적 요건**

- 상징물은 문화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체는 제주인이므로 제주인이 잘 아는 내용이어야 함.
- 도민과 친숙하거나 제주도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상징물 요소끼리 서로 조화되는 것이어야 함.
- 꽃의 경우 상징나무가 있으므로 초분류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민 정서와 일치되는 것이 선정되어야 함.
- 전문가의 전문적 자문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도민 의견도 매우 중요함.

○ **배제해야 할 요건**

- 제주인의 문화·생활 및 지역의 특성과 동떨어진 것은 제외되어야 함.
- 소수 해당분야 전문가만 참여하는 상징물 지정은 지양되어야 함.
- 상징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은 배제해야 함.
-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산업이 쇠퇴할 경우 대상도 자취를 감출 수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
- 꽃은 상징나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분류가 아닌 초분류에서 선정되어야 함.
-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극명한 것은 제외되어야 함.
- 실존하지 않는 것은 제외되어야 함.
- 동물의 경우 수렵대상이나 식용으로 쓰이는 것은 제외되어야 함.

○ 기타 보완 사항

- 도민들의 인지성, 고유성이나 독창성, 아름다움의 수준, 관리의 난이도, 품부성, 유익한가 해로운가, 주변 산업에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 점수화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와 상징물 자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간에 상호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함.
- 상징 동물의 경우 가축으로 할 것인지, 야생으로 할 것인지 범위를 축소해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징물 지정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며,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침으로써 후회없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론 결과

- 상징물에 대한 최종 선정은 제주도의 몫이지만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
- 상징물이 가져야 할 요소별로 해당되는 바람직한 상징물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침.
- 전문가 포럼을 통하여 개인의 의견 차이를 줄이기 곤란하므로 각 부문별 3순위까지 점수화하여 전문가 포럼 결과로 정함.
- 배제 대상 상징물
  - 산업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 수렴대상과 식용으로 쓰이는 것.
  -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극명한 것
  - 실존하지 않는 것.
  - 지역의 특성 및 도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
  - 상징꽃은 목본류가 아닌 초본류일 것

## 2) 상징 대상물에 대한 찬·반 의견

### ○ 나무

- 나무에 대해서는 느티나무와 녹나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았음.
- 감귤나무는 산업 요소, 왕벚나무는 수명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었음.

나무	찬성	반대
느티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중한 자재로 오래 전부터 선호해 온 나무이다.</li> <li>• 성읍 민속마을에 천년이 넘는 느티나무는 국가 뉴밀레니엄 나무로 지정되었다.</li> <li>• 신제주의 가로수 등으로 많이 식재되면서 도민과 친숙하다.</li> <li>• 실용적이면서 자태가 아름답고 품격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li> <li>• 겨울철에 고사목처럼 보여 처량하다.</li> <li>•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징나무로 정하고 있다.</li> </ul>
녹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록수로서 향기도 좋고, 강하며, 벌레가 없으므로 재목으로의 용도도 다양하다.</li> <li>• 바람이 있는 곳이나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li> <li>• 수명이 길며, 약재 살포가 필요없다.</li> <li>• '귀신이 안 들어 온다'에서 알 수 있듯이 희귀하지만 관심이 많은 나무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우 한정된 곳에 자생하므로 도민에게 친숙하지 못하다.</li> <li>• 제주의 문화현상에서 바람을 제외할 수 없는데 녹나무는 바람에 약하다.</li> <li>• 거친 땅에서 잘 자라지 못한다.</li> <li>• 약재로 쓰기 위해 껍질을 벗겨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li> </ul>
감귤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에게 친근감이 있으며 도민과 함께 해 온 나무이다.</li> <li>• 감귤나무는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어느 시기에는 없어질 수 있다.</li> </ul>
비자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에 집단 자생지가 있으며, 역사성이 있어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도가 높다.</li> <li>• 나무의 재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급가구, 특히 고급 기판(棋盤)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구충제나 식용유 등으로 사용되는 등 용도가 다양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나무에 비하여 인지도가 낮을 수 있음.</li> </ul>

○ 꽃

- 상징나무를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꽃은 초분류 중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참꽃은 원래 참꽃나무이며 목분류임.
- 수선화와 한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음.

꽃	찬성	반대
수 선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에 제주의 들녘 어디에나 핀다.</li> <li>• 자태가 고고하고 향기도 그윽하다(금잔옥배라고도 함).</li> <li>•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중 가장 인상 깊은 꽃으로 수선화를 꼽았다.</li> <li>• 초분류이므로 적절하다.</li> </ul>	
한 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기, 자태 등은 군자와 같이 가슴속에 남을 수 있다.</li> <li>• 초분류이므로 적절하다.</li> <li>• 한란은 제주 자생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li> </ul>	
참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목분류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li> <li>• 진달래, 철쭉과의 구분이 애매하다.</li> </ul>
유 채 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도민에게 정감이 가는 꽃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배하는 것이며, 산업과 관련이 있어 사라질 수 있다.</li> </ul>

○ 새

- 제주큰오색딱따구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반대하였음.
- 상징물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종류의 새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음.

- 동박새를 선호하였으나 작고 왜소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꿩과 참새는 찬성하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반대의견에 대부분 공감하였음.

새	찬성	반대
제주큰오색 딱따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귀성도 있고 귀한 새이다.</li> <li>• 나무를 쪼아 등지를 만들고, 그 속에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은 도민의 강인한 정신과 끈기와 개척정신과 견줄만 하다.</li> <li>•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제주도에 토종화된 것이며, 큰오색딱따구리의 아종으로 정해졌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볼 수 없고, 제주인의 문화·생활과 동떨어져 있다.</li> <li>• 번식력이 약하다.</li> <li>• 제주도 상징물 변경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상징성이 약한 것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li> <li>•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을 상징물로 정할 수는 없다.</li> </ul>
동 박 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의 텃새이며, 제주도 모든 마을의 동백숲과 야산지대에 서식한다.</li> <li>• 동백꽃이 필 무렵 무리지어 우는 소리는 자연의 하모니와도 유사하다.</li> <li>• 꽃과 꽃 사이를 옮겨 다니며 화분을 옮기는 익조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약하고 왜소하다.</li> </ul>
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렵대상이고 식용으로 쓰인다.</li> </ul>
참 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박하다.</li> </ul>

○ 색

- 녹색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음.
- 파란색에 대해서는 차가운 느낌이 지역 특성 및 도민 정서와 배치될 수 있음.

- 다른 부문의 상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징물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상징색은 상징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음(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주도가 유일하게 상징색을 지정하고 있음).
- 노란색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없이 반대 의견만 제시되었음.

색	찬성	반대
녹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의 색이라고도 하며 편안한 감정을 갖게 하는 색이다.</li> <li>• 도민에게 파란색보다 더 친숙한 색이다.</li> </ul>	
파 란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타당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가운 계통의 색이어서 지역 특성 및 도민정서와 배치됨.</li> </ul>
노 란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극명한 색이다(예 : 황금, 질투의 상징).</li> </ul>

#### ○ 동물

- 상징 동물을 가축으로 할 것인지, 야생 동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2가지를 모두 정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합축되었음.
- 노루와 제주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노루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썰매나 마차를 끌 수 있도록 길들이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제주마, 흑한우, 토종견 등 동물자원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동물	찬성	반대
노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li> <li>· 쉽게 볼 수 있다.</li> <li>· 번식력이 강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의 고유 문화나 친근감 측면에서 제주마보다 뒤진다.</li> <li>· 겁이 많아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친근감이 약하다.</li> <li>· 노루와 시슴간 잡종이 출현하면서 순수성 측면이 의심스럽다.</li> <li>· 과다 번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li> <li>· 전국에 많이 분포하는 동물로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쉽게 볼 수 있다.</li> </ul>
제주마 (조랑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이며 도민과 매우 친숙하다.</li> <li>· 겨울철 한라산 일대의 어려운 환경에서의 생존력은 강인한 제주인의 생활력과 흡사하다.</li> <li>·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이다.</li> <li>· 체격이 왜소하지만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며, 영리하다.</li> <li>· 오골계, 진돗개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동물자원 보전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li> <li>· 국내 제주마 필요 두수의 80%를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li> <li>· 가축을 상징동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li> </ul>

주) 전문가 포럼에서 조랑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며, 현재 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마**로 사용하기로 함.

### 3) 전문가 포럼 결과 부문별 우선 순위

전문가 포럼 개최 후 각각의 의견 사항을 조율하여 각 부문별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일치함.

따라서 포럼 참여 전문가가 각 부문에 대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를 응답하고, 각각에 대하여 3, 2, 1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함으로써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에 따른 우선 순위를 정함.

#### ○ 나무

- 1순위 응답은 녹나무 5명, 느티나무 4명, 팽나무가 1명임.
- 2순위 응답은 느티나무 3명, 비자나무, 왕벚나무, 녹나무가 각각 2명, 동백나무가 1명임.
- 3순위 응답은 비자나무 3명, 팽나무 2명, 녹나무, 소나무, 구상나무, 감귤나무, 동백나무가 각각 1명임.
-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우선 순위는 녹나무, 느티나무, 비자나무 순이었음.

상 징 물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녹 나 무	15	4	1	20
느티나무	12	6	-	18
비자나무	-	4	3	7
팽 나 무	3	-	2	5
왕벚나무	-	4	-	4
동백나무	-	2	1	3
감귤나무	-	-	1	1
구상나무	-	-	1	1
소 나 무	-	-	1	1

#### ○ 꽃

- 1순위 응답은 한란과 수선화가 각각 3명, 참꽃, 왕벚꽃, 철쭉, 유채꽃이



각각 1명임.

- 2순위 응답은 한란과 수선화가 각각 3명, 참꽃, 왕벚꽃, 철쭉, 유채꽃이 각각 1명임.
- 3순위 응답은 참꽃 3명, 한란 2명, 수선화, 철쭉, 문주란, 진달래가 각각 1명임.
-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우선 순위는 한란, 수선화, 참꽃 순이었음.

상 징 물	1순위	2순위	3순위	계
한 란	9	6	2	17
수 선 화	9	6	1	16
참 꽃	3	2	3	8
왕 벚 꽃	3	2	-	5
철 쭉	3	-	1	4
문 주 란	-	2	1	3
유 채 꽃	3	-	-	3
억 새	-	2	-	2
진 달 래	-	-	1	1

○ 새

- 1순위 응답은 동박새 5명, 제주큰오색딱따구리 2명, 평과 갈매기가 각각 1명임.
- 2순위 응답은 평이 8명, 동박새 2명, 갈매기, 까마귀, 직박구리가 각각 1명임.
- 3순위 응답은 갈매기 3명, 제주큰오색딱따구리 2명, 동박새, 원앙, 제비가 각각 1명임.
-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우선 순위는 동박새, 평,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순이었음.

상 징 물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동 박 새	15	4	1	20
핑	3	8	-	11
제주큰오색딱따구리	6	-	2	8
갈 매 기	3	2	3	8
까 마 귀	-	2	-	2
직박구리	-	2	-	2
원 양	-	-	1	1
제 비	-	-	1	1

○ 색

- 1순위 응답은 녹색이 9명임.
- 2순위 응답은 파란색 4명, 청색 2명, 하늘색 1명임.
- 3순위 응답은 노란색 6명이고, 귤색과 오렌지색이 각각 1명임.
- 1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1명은 1순위 외에 2, 3순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음.
-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우선 순위는 녹색, 파란색, 노란색 순이었음.

상 징 물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녹 색	27	-	-	27
파 란 색	-	8	-	8
청 색	-	4	-	5
노 란 색	-	-	6	5
하 늘 색	-	2	-	2
귤 색	-	-	1	1
오렌지색	-	-	1	1

○ 동물

- 1순위 응답은 제주마 6명, 노루 2명, 흑한우 1명임.
- 2순위 응답은 노루 3명, 제주마와 백록이 각각 2명, 돼지와 사슴이 각각 1명임.
- 3순위 노루가 2명, 돼지를 제외한 다른 동물의 응답은 각각 1명임.
- 1명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응답자중 1명은 3순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음.
- 전문가 포럼 개최 결과 우선 순위는 제주마, 노루, 백록 순이었음.

상 징 물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제 주 마	18	4	1	23
노 루	6	6	2	14
백 록	-	4	1	5
흑 한 우	3	-	1	4
돼 지	-	2	-	2
사 슴	-	2	1	3
산비둘기	-	-	1	1

#### 4. 인터넷 조사

##### 가. 조사 기간 및 사이트

- 공모기간 : 2000. 5. 1 ~5.31
- 사 이 트 : Cheju Net(<http://www.cheju.go.kr>)

##### 나. 조사 방법

- 전문가 포럼에서 각 부문별 상위 3순위에 해당되는 대상 상징물 및 선택

사유를 게재하여 각 부문별 상위 3순위에 해당되는 것 중 가장 바람직한 상징물 및 예시된 선택사유 중 하나를 클릭하도록 함.

-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부문별 대상 상징물 사진을 수록하였으며, 대상상징물 및 응답사유에 대하여 모두 응답하는 경우에만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응모자가 응답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응답 결과를 네티즌이 직접 확인(각 부문별 응답건수, 비율 및 각각에 대한 선택사유 접속 건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조사 내용은 <부록 4>와 같음.

#### 다. 인터넷 조사 결과(총괄)

- 조사 기간중 전체 응답자는 1,450명임.
- 부문별 응답순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나무	꽃	새	색	동물
1위	비자나무	한 란	평	파 란 색	제 주 마
2위	녹 나 무	참 꽃	동박새	녹 색	백 룩
3위	느티나무	수 선 화	제주큰오색딱따구리	노 란 색	노 루

- 조사 기간중 주요 일별 누적 응답자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5월 29일까지 전체 응답자수는 587명이었으나 30일 응답자는 1,317명으로 하루에 730명이 응답하였음<sup>8)</sup>.
- 각 부문별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대상물에 대한 응답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5월 29일까지의 결과를 최종 결과로 채택하였음.
- 주요 조사일별 각 부문별 대상 상징물에 대한 응답수는 다음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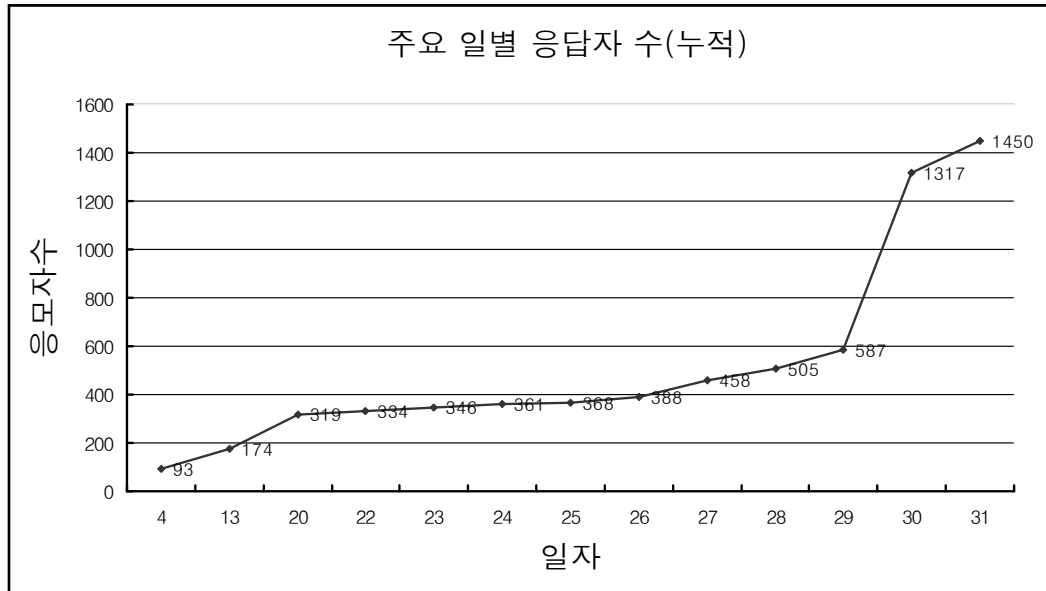
8) 본 조사 결과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특정 대상상징물에 대해서 응답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음. 실제로 공모 기간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특정 대상 상징물의 응답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인터넷 조사 결과>

대상상징물		일별 누적 응답자 수(명)												
		5/4	13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나무	녹 나무	22	48	91	94	98	103	104	109	127	140	<b>167</b>	292	334
	느티나무	12	24	50	51	54	56	58	60	65	71	<b>82</b>	225	249
	비자나무	59	102	178	189	194	202	206	219	266	294	<b>338</b>	800	867
꽃	수 선 화	6	9	19	19	19	21	22	25	34	42	<b>52</b>	201	212
	참 꽃	21	33	64	66	69	73	74	78	82	87	<b>96</b>	233	271
	한 란	66	132	236	249	258	267	272	285	342	376	<b>439</b>	883	967
새	평	34	60	108	113	119	121	123	129	156	174	<b>202</b>	379	414
	동 박 새	34	62	105	107	115	118	121	127	155	169	<b>197</b>	633	705
	제주큰오색딱따구리	25	52	106	114	118	122	124	132	147	162	<b>188</b>	305	331
색	노 란 색	16	31	57	58	59	62	62	66	75	84	<b>85</b>	195	221
	녹 색	34	57	104	112	120	129	134	141	171	197	<b>242</b>	703	769
	파 란 색	43	86	158	164	167	170	172	181	212	224	<b>260</b>	419	460
동물	노 루	40	62	86	88	89	91	92	94	101	102	<b>104</b>	104	108
	백 록	16	30	62	67	69	73	74	85	121	156	<b>215</b>	730	848
	제 주 마	37	82	171	179	188	197	202	209	236	247	<b>268</b>	483	494
총응답자수		93	174	319	334	346	361	368	388	458	505	<b>587</b>	1317	1450

주) 31일 결과는 공모 마감일 최종 응답자 수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조사결과는 조사 당일 9시의 응답자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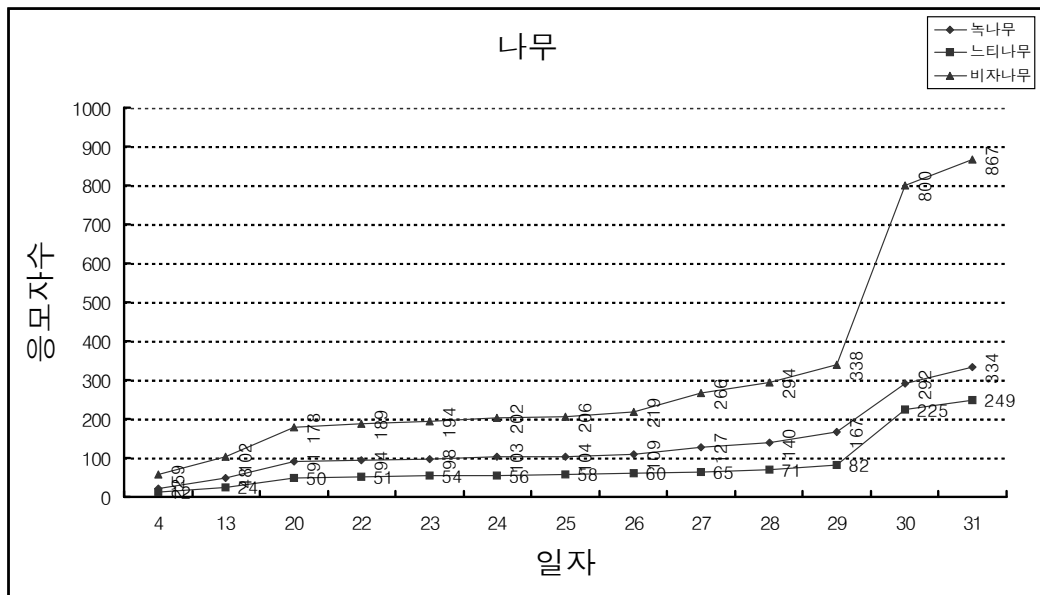
○ 주요 조사일별 누적 응답수는 다음 그림과 같음.



라. 부문별 조사 결과<sup>9)</sup>

○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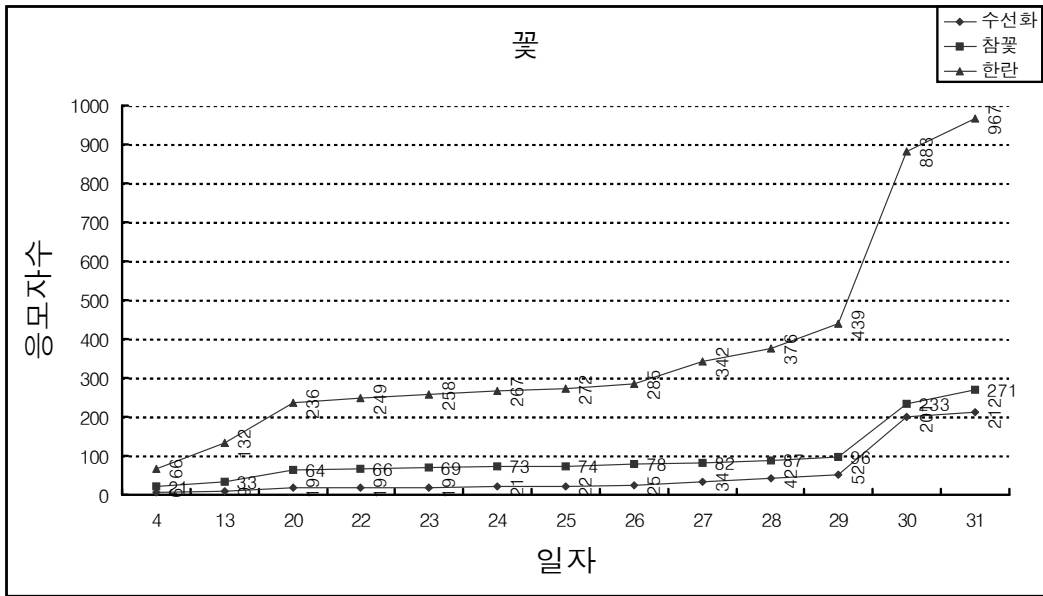
- 인터넷 조사 결과 응답 순위는 비자나무, 녹나무, 느티나무 순이며, 응답자 수(비율)는 각각 338명(57.6%), 167명(28.4%), 82명(14.0%)임
- 29일에서 30일까지 1일간 응답자 730명 중 응답자 수(비율)는 비자나무 462명(63.3%), 녹나무 143명(19.6%), 느티나무 125명(17.1%)임.



○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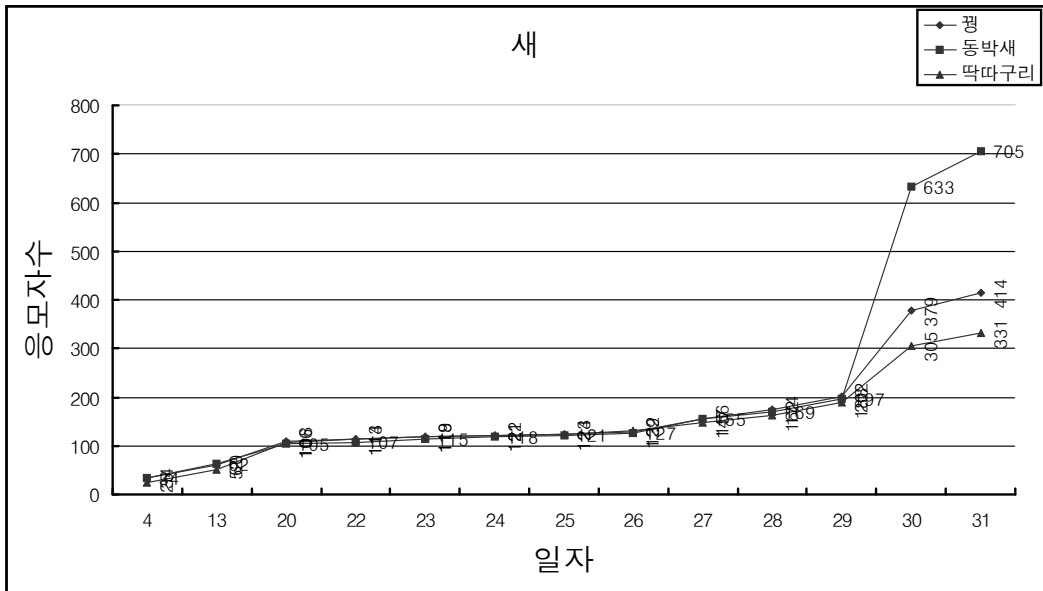
- 인터넷 조사 결과 응답 순위는 한란, 참꽃, 수선화 순이며, 응답자 수(비율)는 각각 439명(74.8%), 96명(16.4%), 52명(8.8%)임
- 29일에서 30일까지 1일간 응답자 730명 중 응답자 수(비율)는 한란 444명(60.8%), 참꽃 137명(18.8%), 수선화 149명(20.4%)임.

9) 응모 결과 개요에서 밝혔듯이 부문별 응모결과는 공모 기간 동안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5월 29일까지의 결과를 채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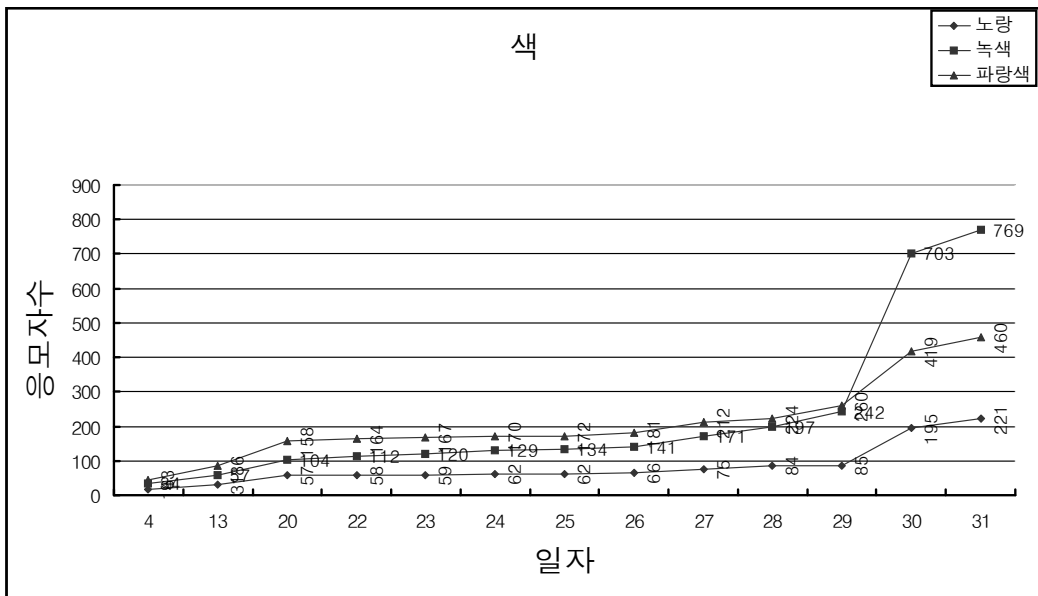
○ 새

- 인터넷 조사 결과 응답 순위는 꿩, 동박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순이며, 응답자 수(비율)는 각각 202명(34.4%), 197명(33.6%), 188명(32.0%)임
- 29일에서 30일까지 1일간 응답자 730명 중 응답자 수(비율)는 꿩 177명(24.3%), 동박새 436명(59.7%), 제주큰오색딱따구리 117명(16.0%)임.



○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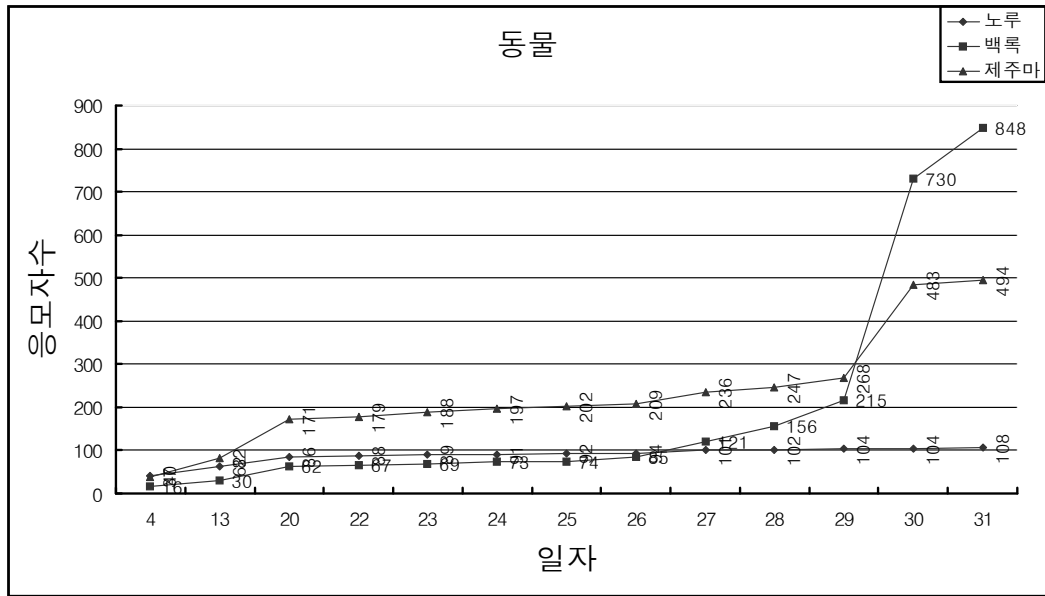
- 인터넷 조사 결과 응답 순위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순이며, 응답자 수(비율)는 각각 260명(44.3%), 242명(41.2%), 85명(14.5%)임
- 29일에서 30일까지 1일간 응답자 730명 중 응답자 수(비율)는 파란색 159명(21.8%), 녹색 461명(63.1%), 노란색 110명(15.1%)임.



○ 동물

- 인터넷 조사 결과 응답 순위는 제주마, 백록, 노루 순이며, 응답자 수(비율)는 각각 268명(45.7%), 215명(36.6%), 104명(17.7%)임
- 29일에서 30일까지 1일간 응답자 730명 중 응답자 수(비율)는 제주마 215명(29.5%), 백록 515명(70.5%), 노루 0명(0.0%)임.
- 백록의 경우 27일 이후 증가 패턴이 이전까지의 패턴과 다르게 급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9일부터 30일까지 단일 항목에 대한 접속 비율이 각 부문 조사 대상 상징물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음.





## IV. 종합 의견

### 1. 기존 제주상징물의 선정 경위와 문제점

#### 가. 최초 지정 상징물

##### ○ 선정 경위

- 우리도의 고유한 전통과 기상, 무궁한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각각 선정하여 대내외적인 도의 표상으로 삼기 위하여 선정.
- 상징물 선정 도민 공모(총 58건 응모) 후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 1차 심사 및 최종 심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선정함.

구 분	나 무(木)	꽃(花)	새(鳥)	색(色)
상 징 물	녹나무	영산홍	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선 정 일	'73. 11. 9	'73. 11. 9	'73. 11. 9	'73. 11. 9
선정방법	공 모	공 모	자 체	공 모
응모건수	15종 54건	17종 51건	-	12종 51건

##### ○ 문제점

##### • 도민여론 수렴 부족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으나 응모자가 58명에 불과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지정함.

상징새의 경우 도민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 선정함으로써 도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 전문가 참여 미약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전문가 8인의 전문 영역은 꽃, 나무, 새, 색 분야의 한정된 전문가 외에는 국문학 분야 1명만 참여하였고, 도민의 정서, 향토사 등 인문 사회적 요인을 대변할 전문인은 참여되지 않았음.

## 나. 1차 조정된 상징물

### ○ 조정 경위

- '73년 상징물 최초 지정 후 이를 변경해야 한다는 공식, 비공식 의견이 대두됨('89년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회 건의 등).
- 기 선정된 상징물이 제주도에 대한 대표성 및 도민 정서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 승격 50주년(1996)을 맞아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하는 「제 2도제 개막」과 「위대한 제주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변경하기로 함.
- 상징물 변경 과정은 기존 상징물에 대한 인지도와 적합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상징물 선정 도민 공모,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도민 의견 조사 및 제주도청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도정조정위원회, 상징물 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조정함.

구 분	나 무(木)	꽃(花)	새(鳥)	색(色)
기 존 안	녹나무	영산홍	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조 정 안	녹나무	참 꽃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란색
변 경 일	-	'96. 7. 12	'96. 7. 12	-

주) 참꽃의 경우 제주분홍참꽃이라고도 함

### ○ 문제점

#### • 도민여론 수렴 부족

신문 광고를 통하여 도민 의견을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199명으로 폭넓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함.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경우 제주도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함.

- 심사위원 구성 및 방법상의 문제

심사위원 중 도민의 정서나 향토사 등 인문 사회적 요인을 대변할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아 최초 상징물을 지정할 때와 동일한 문제를 내포함.

심사위원회 1차 심사에서 도민 공모 결과 나타난 상위 6순위 안에 해당되지 않았던 녹나무, 참꽃, 억새꽃 등을 해당 부문 3순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도민 공모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 상징 새의 선정 문제

최초 지정 상징물을 바꾸게 된 구체적인 동기중의 하나는 큰오색딱따구리였음. 각종 조사 과정에서 큰오색딱따구리에 대한 선호도가 적었으며 도민 공모, 심사위원 1차 심사, 여론 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으나 도정조정위원회 및 심사위원 2차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학명에 맞게 기존의 큰오색딱따구리를 제주큰오색딱따구리로 명칭만 수정하여 그대로 정함.
- 상징 색의 선정 문제

상징 색의 경우 파란색은 도민 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초록색, 노란색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음. 그리고 각각의 조사에서 초록색의 비율(43.7 %, 43.4%)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22.3%, 22.8%)을 특별한 이유없이 순위를 무시하고 지정함.

## 2.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 결과<sup>10)</sup>

### 가. 선정 과정

-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민 공모<sup>11)</sup>, 전문가 의견 조사<sup>12)</sup> 및 전문가 포럼 결과 상위 3순위에 대한 인터넷 공모<sup>13)</sup> 과정을 거쳤음.
- 본 연구는 1차 도민 공모를 거친 후 상위 10순위까지의 응모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상위 3순위까지를 선정하고, 제주도청 Home page에 게시,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상징 대상물을 최종 선정하였음.

---

10) 기존 제주 상징물은 나무, 꽃, 새, 색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징 동물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징 동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음. 광역자치단체중 상징 동물을 정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에서 도어(道魚)를 정하고 있음.

11) 신문 및 방송 광고를 통한 도민 공모 결과 각 부문별 응모자수는 나무 1,610명, 꽃 1,680명, 새 1,440명, 색 1,693명, 동물 1,031명임.

12) 전문가 조사는 도민 공모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였음.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 후에 우편 회수하였는데 총 100명의 조사 대상자(단체대표 37명, 학계 30명, 언론계 13명, 국회의원 8명, 공무원 12명)중 83명의 응답결과를 회수함.

특히 조사 대상자는 식물, 동물, 조류, 미술, 조형, 관광, 생태, 디자인, 향토사, 인류학, 음악,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켰고, 직능, 종교, 지역을 배분함으로써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함.

13) CHEJU NET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조사 결과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5월 29일까지 총 응답자 수는 587명임.

나. 선정 방법

1) 1단계 : 각종 조사결과에 대한 상위 3순위 선정

- 도민 공모, 전문가 의견 조사, 전문가 포럼 및 인터넷 조사 결과 나타난 상위 3순위 대상 상징물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조사 결과 상위 3순위 선정 >

구 분	순 위	도민공모	전문가 조사	전문가 포럼	인터넷 조사
나 무	1순위	감귤나무	느티나무	녹 나 무	비자나무
	2순위	소 나 무	감귤나무	느티나무	녹 나 무
	3순위	녹 나 무	녹 나 무	비자나무	느티나무
꽃	1순위	유 채 꽃	참 꽃	한 란	한 란
	2순위	철 쪽	유 채 꽃	수 선 화	참 꽃
	3순위	참 꽃	왕 벚 꽃	참 꽃	수 선 화
새	1순위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평	동 박 새	평
	2순위	평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평	동 박 새
	3순위	참 새	갈 매 기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색	1순위	녹 색	녹 색	녹 색	파 란 색
	2순위	파 란 색	파 란 색	파 란 색	녹 색
	3순위	노 란 색	노 란 색	노 란 색	노 란 색
동 물	1순위	노 루	노 루	제 주 마	제 주 마
	2순위	제 주 마	제 주 마	노 루	백 록
	3순위	사 슴	백 록	백 록	노 루

2) 2단계 : 부문별 상위 3순위 선정

- 도민 공모, 전문가 의견 조사, 전문가 포럼, 인터넷 조사 결과를 종합하

여 점수화 방법으로 부문별 3순위 대상물을 결정함.

점수화는 각각의 조사 결과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공통 기준으로 배점하여 산출함.

-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전문가 포럼에서는 상징물 선정 원칙을 정함.
- 점수화를 통하여 선정한 상위 3순위까지 대상물은 다음과 같음.

**< 부문별 상위 3순위 대상 상징물 >**

나무	꽃	새	색	동물
녹 나 무	참 꽃	평	녹 색	제 주 마
느티나무	한 란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 란 색	노 루
감귤나무	유 채 꽃	동 박 새	노 란 색	백 록

**3) 3단계 : 최종 상징물 선정**

- 최종 상징물은 전문가 포럼에서 합의된 상징물 대상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대상물을 제외시키고, 선정 원칙을 적용하여 대상 상징물을 최종 선정함.
- 제외된 상징 대상물
  - 산업자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 감귤나무, 유채꽃.
  - 수렵 대상과 식용으로 쓰이는 것 : 평.
  -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극명한 것 : 노란색<sup>14)</sup>
  - 실존하지 않는 것 : 백록<sup>15)</sup>
  - 지역의 특성 및 도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것 : 파란색<sup>16)</sup>

14) 노란색은 황금과 질투를 상징하는 색으로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매우 극명하기 때문에 상징색으로 사용하지 않음.

15) 백록은 한라산에 서식했다는 전설은 있으나 오늘날 전래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서식했다는 학술적 근거가 미약함.

- 상징꽃의 경우 상징나무를 정하기 때문에 목본류는 제외 : 참꽃17)
- 최종 대상 상징물은 선정 원칙을 점수화하여 상위 점수를 얻은 대상물 중에서 택일함.
- 상징꽃과 상징색은 단일 대상물이므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함.

**< 제주 상징물의 상징 요소에 대한 평가 >**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	대상 상징물							
	나무		새		동물		꽃	색
	녹 나 무	느티 나무	제주큰오색 딱따구리	동 박 새	제 주 마	노 루	한 란	녹 색
제주도민과 친근감이 있는 것		○		○	○		○	○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홍보성이 강한 것.	○	○	○	○	○	○	○	○
제주도에 많이 분포하거나 서식하는 것.	○	○		○	○	○	○	○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			○		○		○	
제주도 역사·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		○		○	○		○	○
다른 지역의 상징물과 중복되지 않는 것.	○		○	○	○			○
신비로움이 있는 것.			○				○	
외지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		○			○	○	○	○
	<b>3</b>	<b>5</b>	<b>4</b>	<b>5</b>	<b>7</b>	<b>3</b>	<b>7</b>	<b>6</b>

주) 느티나무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상징나무이며, 노루는 제주시의 상징동물이며, 한란과 동박새는 서귀포시의 상징물임.

- 16) 파란색은 녹색과 같은 계통의 색이지만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으로 남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따듯한 기후와 인심 좋은 제주의 전통성과 배치됨.
- 17) 참꽃은 목본류로 또다른 상징나무를 정하고 있어 참꽃을 정할 경우 목본류가 이 중으로 선정되므로 전문가 포럼에서 상징꽃은 초본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이상의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각 부문별 대상 상징물은 다음과 같음.

**< 최종 선정된 상징물 >**

나무	꽃	새	색	동물
느티나무	한    란	동 박 새	녹    색	제 주 마

**다. 최종 선정된 상징물의 해설<sup>18)</sup>**

**□ 나 무(느티나무)**

- 주요 특성
  - 각종 가구, 건물의 기둥, 고분의 관재(임당고분, 천마총 등) 등을 만드는데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음.
  - 나무는 단단하고 무거우며 갈라지거나 비틀리지 않고 보존성이 강해 치장 무늬목으로 적당함.
  - 나무결이 아름답고 사용할수록 윤이 나며 잘 썩지 않고 가공하기 쉬운 최고급재이며, 나이트가 뚜렷하고 심재는 황갈색 또는 황색을 띠는 홍갈색, 변재는 엷은 황갈색을 띰.
  - 오래된 마을에는 정자나무로 활용되었음.
  - 낙엽활엽 교목, 장수목으로 녹음수 또는 기념수로 많이 식재되며, 심근성이며, 이식력도 양호하고 생장도 신속하며 내음성은 강하지만 건조에 약함.
  - 제주도에서는 이를 ‘굴무기나무’라고도 하는데 전국의 산록, 계곡, 마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배수가 잘되고 통기가 잘되는 중성 토양에 잘 자람.
  - 수형이 넓게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숲속에서 다른 나무와 경쟁하는 나무는 바르게 자라서 높이 50m, 직경 3m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18) 2단계에서 선정된 상위 3순위 상징물중 최종 선정된 상징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물에 대해서는 <부록 5>에 그 내용을 정리하였음.

-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 10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있으며, 산림청이 이 나무를 new millenium 나무로 선정하였음.
  - '90년 4월에 전국적으로 '느티나무사랑회'가 결성되어 느티나무 묘목 구입, 무료 분양사업과 전국의 오래된 느티나무를 조사·발굴·보존하는 사업, 느티나무에 얽힌 사연과 전설 그리고 향토문화와 민속을 발굴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실용적이면서 자태가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 보임.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 도민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음.
    - '89년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에서 기존의 상징물인 녹나무를 느티나무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음.
    - '96년 도민 공모에서 상위 6위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 '99년 도민 공모에서 기타 의견으로 제시되었고,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1위, 전문가 포럼에서 2위, 인터넷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함.
- 긍정적 의견
    - 목가구의 귀중한 자재로 오래 전부터 선호하여 제주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성읍 민속마을에 있는 수령 천년 넘는 느티나무는 '국가 뉴밀레니엄 나무'로 지정되어 전국적으로 홍보됨.
    - 가로수 등으로 많이 식재되어 도시민들에게도 친숙함.
    - 실용적이면서도 자태가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 보임.
    - 끈질긴 생명력은 도민의 강인한 정신을 반영함.
- 부정적 의견

-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음.
- 낙엽수로서 겨울철에는 고사목처럼 처량하게 보임.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상징나무로 정하고 있음<sup>19)</sup>.

## □ 꽃(한 란)

### ○ 주요 특성

- 천연기념물 제19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식물의 종류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한란이 유일함.
-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식물임.
- 한란은 난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의 남부지방과 대만에도 분포함.
- 제주한란은 한라산 해발 70~900m의 상록수림 밑에서 자라며, 꽃은 주로 10~11월에 5~15개가 필.
- 꽃색에 따라 청한란, 홍한란, 자한란, 경사한란 등이 있음.
- 모든 식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겨울에 피어나 차갑고 맑은 향기를 피어내 애호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
- 선비의 기개를 닮은 식물로 비유됨.
- 제주도의 한란은 개인 소유까지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2개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유일한 식물임(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음.
- '89년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에서 기존의 상징물인 영산홍을 제주한란으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음.
- '96년 기존 상징물에 대한 도민 공모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나 상징물 지정심의회 1차 심의 이후 제외되었음.

---

19)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상징나무로 지정됨.

- '99년 도민 공모에서 4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4위, 전문가 포럼 및 인터넷 조사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향기, 자태 등은 군자와 같이 가슴속에 남을 수 있음.
  - 초본류이므로 적절함.
  - 한란은 제주 자생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음.
- 부정적 의견
  - 별도의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음.

#### □ 새(동박새)

- 주요 특성
  - 참새목 동박새과 동박새속에 속하며, 한반도 중부 이남의 도서인 인천 앞 바다의 여러 섬, 거제도, 울릉도, 제주도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임.
  - 한국, 일본, 중국 중남부, 타이완, 하이난 섬, 북부 필리핀 등지에서 서식함.
  - 몸의 위쪽은 어두운 황록색이고 눈의 바깥 둘레는 하얗다. 목은 노란색 이고, 가슴 아래쪽은 혼탁한 흰 색이며 옆구리는 자색을 띤 갈색임.
  - 동백꽃 꿀을 좋아하여 동백꽃이 필 무렵에는 동백나무 숲에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 꿀을 빨아먹음.
  - 울음소리가 청아하여 휘파람새와 같이 새장에서 사육하는 경우도 있음.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 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아 거론되지 않았음.
  - '96년 도민 공모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

의 이후 제외되었음.

- '99년 도민공모에서 4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4위, 전문가 포럼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인터넷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제주의 텃새이며, 제주도 모든 마을의 동백숲과 야산지대에 서식함.
- 동백꽃이 필 무렵 무리지어 우는 소리는 자연의 소리와 잘 어울림.
- 꽃과 꽃 사이를 옮겨 다니며 화분을 옮기는 익조임.

○ 부정적 의견

- 연약하고 왜소함.

## □ 색(녹 색)

○ 주요 특성

- 일명 자연의 색이라고도 하며 편안한 감정을 갖게 함.
-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색으로 희망, 평화를 나타냄.
- 고통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최선의 색으로, 건강을 상징하며 휴식을 주는 색으로 환경운동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임.
- 희망과 행복을 주는 색의 의미와 공상의 색으로 지칭됨.
- D.P. 가디아리는 “녹색은 명이다. 어떤 색을 사용해야 좋을지 망설여질 때는 무조건 녹색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E.L. 오웬즈 박사는 “전구에 녹색필터를 씌워 화상치료에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
- 녹색은 청정제로서 작용하며 하수체를 자극하여 점차 다른 선 계통을 자극하며, 혈액의 응고를 풀어주고 근육, 조직, 피부를 생성시켜 줌.
- 인도인들은 녹색을 진리를 뜻할 뿐만 아니라 지적 소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단히 좋아함.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음.
  - '96년 도민 공모와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였으나 도민 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 '99년 도민공모에서 1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1위, 전문가 포럼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인터넷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자연의 색이라고도 하며 편안한 감정을 갖게 함.
  - 제주에서는 산야의 상징 색으로 도민에게 친숙함.
  
- 부정적 의견
  - 별도의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음.

#### □ 동물(제주마)<sup>20)</sup>

- 주요 특성
  - 유제목, 마과, 마속에 속함.
  -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되어 있음.
  - 토종 제주마는 개량마에 비해 몸집이 훨씬 작고 거친 외양을 하고 있으나 힘이 세고, 기민해서 승마감이 양호함.
  - 과거에는 제주의 주요 운송수단의 하나였고, 도민과 친숙한 동물임.
  - 제주경마장을 비롯하여 중산간 지역 곳곳에 승마장이 시설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20) 본 연구인 「제주도 상징물의 상징성 연구」에서 처음 거론된 것으로 그 이전에 선 상징 동물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

- 심사 경위
  - '99년 도민 공모에서 2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2위, 전문가 포럼에서 1위, 인터넷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천연기념물이며 도민과 매우 친숙함.
  - 겨울철 한라산 일대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하게 생존하여 강인한 제주인의 생활력과 흡사함.
  -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이며, 체격이 왜소하지만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하며, 영리함.
  - 오골계, 진돗개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동물자원 보전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임.
  - 국내 경주마 필요 두수의 80%를 생산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 부정적 의견
  - 제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음.
  - 가축을 상징동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VI. 정책 제언

- ① 본 연구 결과는 도민 공모, 전문가 의견 조사, 전문가 포럼 및 인터넷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주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므로 다음의 대상물을 상징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추천함.

나무	꽃	새	색	동물
느티나무	한 란	동 박 새	녹 색	제 주 마

- ② 새로운 상징물의 선포는 의미있는 날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예) 민선 2기 출범일(7월 1일)

제주도제 시행 기념일(8월 1일)

새천년 한라문화제 개막일(9월 또는 10월)

- ③ 홍보활동 강화

-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도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함.
-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 지역 관련 부문에 상징물에 대한 종류, 의미 등을 소개함.
- 상징물을 캐릭터화하여 각종 발간물에 활용함.
- 공포 후 일정 기간 지난 후 거리 또는 각종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 제주 상징물 맞추기 대회 등을 가짐.
- 제주도가 개발한 CI와 병행하여 새롭게 연출한 홍보물 제작도 필요함.



- 상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원·공공장소 등에 상징나무, 꽃 등을 심고 표말을 세워 홍보함.
- ④ 관광상품 등의 개발
- 제주도 상징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함.
  - 상징물을 이용한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국내외 선물 등으로 활용함.
- ⑤ 나무, 꽃 등을 이용한 특색있는 상징 공간을 조성하여 이벤트 개최 장소 및 관광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⑥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제주도 및 4개 시·군이 지정하고 있는 상징물을 통합하여 화합분위기 조성, 활용성 및 홍보효과를 높임.



## 부 록

1. '99 도민 공모 결과 부문별 소수 의견
2. '99 전문가 의견 조사
3. 전문가 포럼
4. 인터넷 조사 내용
5. 상위 3순위 대상 상징물 해설
6. 자치단체의 상징물 사례 조사



## 부록 1

### '99 도민 공모 결과 부문별 소수 의견<sup>21)</sup>

#### □ 나무

'99년 공모 결과 상위 10순위 이하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나무 종류(55종)

감나무	고목	곰솔	관죽나무
구름비나무	구실잣밤나무	꿀나무	깽깽나무
나한송	노가리	느릅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담팔수	대나무	독나무
돈나무	돌매화	망고	매화나무
먼나무	멸구슬나무	멸구슬나무	목련
백일홍	버드나무	비파나무	뽕나무
사철나무	산동나무	산딸나무	삼나무
상녹수	선인장	소철	솔나무
앵두나무	야자수	오동나무	유자나무
은행나무	이팔나무	잣나무	종려나무
차나무	참꽃나무	철쭉	측백나무
탱자나무	한라산붉은소낭	해송	협죽도
황솔나무	후박나무	흑오미자	

21) '99년 도민 공모 결과 각 부문별로 제시된 내용 중 10순위 이하에 해당하는 소수 의견을 가나다순으로 나타낸 것이다.

□ 꽃

'99년 공모 결과 결과 상위 10순위 이하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꽃 종류(57종)

갈대꽃	개나리	국화	금새우란
금잔화	나리꽃	나팔꽃	난*
노루귀	눈꽃	돌매화	들꽃
목련화	무궁화	무꽃	문란
물망초	물봉선화	민들레	박꽃
방울꽃	백일홍	백합	복수초
봉선화	붓꽃	선인장	세비늄
손바닥선인장	솜다리(에델바이스)	수선화*	쑥부쟁이꽃
아카시아	안개꽃	연꽃	은방울꽃
자목련	장미꽃	제비꽃	제주달구지풀
제주양지꽃	제주조릿대	제주춘란	짚레꽃
코스모스	탐라산수국	튤립	풀꽃
풍란	한라구름송이	한라구절초	한라평의다리
할미꽃	해녀콩	해바라기	호박꽃
후리지아			

주) \* 도민 공모에서는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문가 포럼에서는 한란이 1순위, 수선화가 2순위를 차지하였다.

□ 새

'99년 공모 결과 상위 10순위 이하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새 종류(60종)

개똥쥐박귀	고니	공작새	군함새
기러기	피꼬리	노랑부리백조	노랑부리새
노랑부리저어새	녹색비둘기	닭	독수리
두루미	딱따구리	마도요	매
덕황새	멧비둘기	무지개평	물총새
바다직박구리	바람까마귀	바위제비	박새
방울새	백로	벌새	부엉이
불사조	비취새	빠꾸기	새두루미
새매	소쩍새	솔개	슴새
십자매	앵무새	올빼미	잉꼬
제주굴뚝새	제주밀화부리	제주오목눈이	제주회파람새
조롱박새	종달새	직박구리	찌꼬리
참독수리	청둥오리	크낙새	큰유리딱새
파랑새	팔새조	학	해오라기
황새	황조롱이	흑비둘기	흰비둘기

□ 색

'99년 공모 결과 상위 10순위 이하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색의 종류(30종)

감색	개나리색	검정색	군청색
갈색	금색	남색	다홍색
돌색	무색	무지개색	바다색
보라색	분홍색	비색	비취색
에메랄드색	연두색	자주색	진회색
청녹색	파스텔톤	풀색	핑크색
현무암색	황금색	황색	황토색
회색	흑색		

주) 색상의 경우 순수한 우리말, 한자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나 응답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대로 제시하였음.



□ 동물

'99년 공모 결과 결과 상위 10순위 이하 소수 의견으로 제시된 동물의 종류(50종)

갈매기	갈치	감성돔	갯돔
거북이	게	고래	곰
기린	까마귀	까치	너구리
다금바리	다람쥐	닭	독수리
덤	동박새	망아지	매
무태장어	물개	백호	비둘기
산호	삼치	삼살이	상어
오목눈이	오소리	오징어	용
이무기	자리돔	재규어	전복
제비	제주큰오색딱따구리	족제비	진돗개
청개구리	청둥오리	캥거루	표범
학	한우	한치	해태
호랑이	황소		

## 부록 2

### '99 전문가 의견 조사

#### 가. 조사 대상자 명단 : 100명

##### ○ 사회 각계 : 37명

- 강영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서양화)
- 강원철,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 강요배,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화가)
- 강정은, 제주도섬문화축제위원장
- 고두승,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 고용문,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김순오, 서귀포 문화원장
- 김순택, 세종의원 원장
- 김정서, 제주기독교협의회회장
- 김태성, 제주 YMCA사무총장
- 김형옥, 늘푸른제주21 상임의장
- 김희현, 대진관광 대표 (748-8886)
- 문무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
- 문영자,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 박용수, 제주도관광발전협의회 위원장
- 변수문, 제주도새마을부녀회장
- 부소영, 축제문화연구원 연구원 (744-1064)
- 서재철, 영상기획 자연사랑 대표 (사진작가)
- 손영주, 대한간호협회 제주도간호사회 회장
- 송봉규, 전 제주도의회 의장

- 수암스님, 제주불교총연합회장
- 신용준, 전 한라대학장
- 양중해, 제주문화원장
- 오경애, 제주 YWCA회장
- 오광협, 전 서귀포시장
- 오성찬, 소설가
- 이순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제주도지회장
- 이상철, 제주은행장
- 이영운,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무국장
- 이유근, 제주도 의사회장(한마음병원 원장)
- 이주봉,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장
- 이창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 정상배,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좌남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 하순애, 제주문화포럼 원장
- 한공익, 성산일출축제추진위원장(전제주도의원)
- 홍순만, 향토사학자

○ 학계 및 교육계 : 30명

- 강문정,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간호학)
- 강문철, 제주관광대학 음악과 교수 (작곡)
- 강태숙, 제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축산경영)
- 김경호,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
- 김도경, 제주관광대학 사진영상과 교수 (사진)
- 김문홍,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식물)
- 김미영, 제주산업정보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입체조형)
- 김석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

- 김택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시간강사 (서양화)
- 김희열, 제주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문학)
- 노 섬, 제주대학교 증식학과 교수 (어류)
- 박경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양과 교수 (체육학)
- 박상수, 제주대학교 기획관리실장 (관광)
- 박행신, 제주대학교 생물교육전공 교수 (생태)
- 손영수,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
- 양영근, 탐라대학 레저개발과 교수 (관광개발학)
- 양진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교육학)
- 양창보,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동양화)
- 양후림, 오현고등학교 교장
- 유철인,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인류학)
- 이기후,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디자인)
- 이은주,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 임춘배, 제주교육대학 교수 (조각가)
- 장홍용,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작곡)
- 조영배, 제주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작곡)
- 진덕구, 제주중앙중학교 교장
- 최정환, 제주한라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시각디자인)
- 허민자,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도자공예)
- 현병찬, 동화초등학교 교장
- 현화진,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 언 론 계 : 13명

- 강창식, 불교신문 사장
- 김덕남, 제주타임스 편집국장
- 김동욱, 한라일보 정치부장

- 김범훈, 제주일보 편집부장
- 김영창, KBS 보도국 부장
- 김오순, 제주일보 기자
- 김원민, 한라일보 논설위원
- 양해석, 제주일보 정경부장
- 오석훈, MBC TV제작부장
- 오창수, KCTV 부장
- 윤정웅, 제민일보 정치부장
- 한석도, MBC 보도국 차장
- 허영선,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 **의회의원 : 8명**

- 김경언, 남제주군의회 부의장
- 김영훈, 제주도의회 부의장
- 김의남, 북제주군의회 부의장
- 양우철, 제주도의회 종합발전지원법심사 특별위원장
- 오만식,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 이봉만, 제주시의회 부의장
- 임기옥, 제주도의회 의원
- 조수준, 서귀포시의회 부의장

○ **공무원 : 12명**

- 강성근, 북제주군 기획감사실장
- 고원종, 제주도청 문화재감정관 (도예가)
- 김치석, 제주도 관광경영과장
- 김형수, 제주도 공보실장
- 류상부, 서귀포시 관광문화과장

- 양동근,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장
- 이상호, 제주도 관광진흥과장
- 이영두, 서귀포시 기획실장
- 하맹사, 제주시 기획실장
- 한동주, 제주도 투자진흥관
- 한석대, 북제주군 관광교통과장
- 현을생, 제주시청 문화체육과장

#### 나. '99 전문가 의견 조사 설문서<sup>22)</sup>

1. 제주도 지정 상징물(나무, 꽃, 새, 색, 동물)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우선 순위에 따라 3가지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
  - ①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제주도민과 친근감이 있어야 한다.
  - ④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신비로움이 있어야 한다.
  - ⑥ 도민의 정서(역사·문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⑦ 외지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한다.
  - ⑧ 다른 지역의 상징물과 중복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⑨ 기타(     )
  
2. 현재 제주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상징물(녹나무, 참꽃,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란 색)은 1번 응답과 관련하여 바람직하게 지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상징 동물의 추가여부도 함께 응답하여 주십시오(예, 아니오에 ○표 하여 주십시오)

<sup>22)</sup> 전문가조사는 도민 공모 결과 상위 10순위에 해당하는 각 부문별 대상상징물에 대하여 응답자 수 및 비율을 제시하여 대상 상징물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및 제주도 4개 시·군의 상징물을 참고로 제시하였음.



### 부록 3

## 전문가 포럼

- 일시 : 2000년 3월 20일(15:00~16:00)
- 장소 : 제주발전연구원 회의실
- 사회 : 이문교(제주발전연구원장)
- 발표 :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토론 요지

#### ○ 홍순만

- 상징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최소한 그러한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꿩은 긍정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나 도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새이다. 단지 시각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상징물인데 여기에는 문화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주인을 떠난 문화는 생각할 수 없다. 제주인이 주체이기 때문에 제주인이 모르는 것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 큰오색딱따구리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어느 사진작가가 몇 년간의 추적 끝에 사진 촬영에 성공하였다. 본인도 새의 울음소리는 들은 적이 있으나 본 적이 없다. 쉽게 볼 수 없는 새이다. 이 새는 도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제주인의 문화·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각종 조사에서 제주큰오색딱따구리가 높은 울로 응답이 나오는 것은 조사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녹나무를 직접 키워 보았다. 봄에 아름다운 나무이다. 현재 성읍민속촌, 제주의료원, 관덕정, 도순동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우 한정된 곳에 자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상징나무로 지정된 이후 현재는 많이 보급되었다. 제주인과 함께 해 온 나무를 정하자, 소수 해당분야 전문가



만 참여하는 상징물 선정은 지양하자.

○ 변성근

- 오늘 발표자료에 있는 전문가 조사 결과중 제주도 지정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한 조사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원 동의 의사 표명). 저는 이를 근거로 상징물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나무는 감귤나무가 도민에게 친근감이 있다. 접목하고 가지를 다듬고 많은 도민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 온 나무이다. 유채꽃도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도민에게 정감이 가는 꽃이다. 이러한 대상물은 산업작물이라는 점에 고려할 바가 있다.
- 제주큰오색딱따구리보다는 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수렵대상이고, 식용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동박새가 가장 바람직하다.
- 색은 녹색이 타당할 것이다.
- 노루는 향후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나 상징동물은 조랑말이 적절할 것이다.

○ 오성찬

- 느티나무 : 전문가 조사의 1순위를 차지한 이 나무는 각 방면의 귀중한 자재로 제주에서도 오래 전부터 대단히 선호해온 나무이다. 성읍민속마을에 있는 수령 1,000년이 넘는 나무가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거니와, 이미 산림청은 이 나무를 뉴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한 바도 있다. 목재는 곧고 견고하고 깨끗하며, 이른 봄에 연록색의 새싹이 돋아날 때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데, 이미 신제주의 가로수로 심어져 이제 도민과도 꽤 친숙한 나무가 되었다. 실용적이면서 자태가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 도의 나무로 지정하기에 손색이 없다. 한가지 흠이라면 겨울철에

고사목처럼 보이는 것이다.

- 수선화 : 이제까지 도화로 지정돼 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수위를 차지한 제주참꽃은 그 이름 때문에 친숙한 것 같으나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는 진달래, 철쭉과 구분조차 애매한 꽃이다. 이런 종류의 꽃들이 주는 혼란은 우리에게 앞으로든 꽤 오래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대신 제주의 거의 모든 들판에서 겨울에 피는 꽃인 수선화는 자태가 고고할 뿐만 아니라 향기도 그윽하다. 국보 제 180호 <歲寒圖>를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 고장에 와서 유배생활을 했던 유명한 학자이며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선생도 유배 생활 중에 가장 인상깊은 꽃을 수선화로 꼽았으며, 이 꽃에 대한 시도 남긴 바 있다.
- 동박새 : 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제주의 새로 지정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조류 관계 학자이거나 산악인들이 했을 것이다. 이 새를 제주 도민 중 몇 사람이나 봤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설문조사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새 역시 이름이 한몫 했을 것이 틀림없다. 보편성과 인지도 면에서 나는 동박새를 추천한다. 이 새는 제주의 텃새이면서 이 고장 거의 모든 마을의 동백숲과 야산지대에 서식한다. 녹색의 예쁜 몸둥이를 가진 이 새는 특히 겨울 동백꽃이 필 철에 나무 가지 사이를 옮겨 다니며 쪼깍거릴 때는 그 소리의 하모니가 자연의 교향악을 닮았다. 동박새는 모습이나 소리, 특히 꽃과 꽃 사이 화분을 옮겨 주는 익조인 점에서 제주의 새로서 손색이 없다.
- 녹색 : 일명 자연의 색이라고도 하며 편안한 감정을 갖게 하는 녹색은 이제까지의 상징적 색깔인 파란색에 비해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다. 특히 봄에 제주의 들판에서 사방을 살펴보면 온통 녹색이다. 이런 색깔이 이번 조사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제주에는

파란색의 바다와 하늘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희망찬 들판과 인간도 함께 숨쉬고 있다. 거기다 느티나무의 어린잎과, 동박새의 몸둥이가 녹색으로 일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인연이다.

- 조랑말 : 고려시대 원나라가 이 섬의 수산평에 말을 갖다 놓고 키우기 시작한 후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조랑말은 도민과 매우 친숙한 동물이며, ‘제주 사람 = 조랑말’로 바로 도민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사람을 낳거든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낳거든 제주로 보내라”든가, “제삿 말 제 갈기 뜯어먹기” 같은 속담은 이를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하겠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 제주의 목자들은 이런 말을 외양간에 가둬 기른 것이 아니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천연적인 목장에서 놔 먹였는데, 이런 말들을 꽃말(野馬) 꽃쇠(野牛)라고 했다. 이것들은 겨울, 눈이 내리는 계절이 되면 한길이나 되는 눈 속에 갇히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마침내는 자기 갈기나, 서로 갈기를 뜯어먹으며 난관을 극복했다. 이는 곧 우리 역사상 선인들이 1년에 몇천 명씩 쓰러지는 흉년과, 잦은 입질 하듯 침범하는 왜구들을 극복하던 것과 매우 흡사한 방법으로 당연히 제주의 동물은 조랑말이 되어야 한다.

#### ○ 강영호

- 본인은 색이 전문인데 나무, 꽃, 새,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 다만 색은 이들을 먼저 정한 후에 이들과 조화될 수 있는 색으로 자연스럽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상징색으로 노란색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극명하게 갖고 있는 색이다. 예를 들면 황금의 뜻도 있지만 질투의 뜻도 있다.
- 녹색과 파란색은 같은 계통의 색이다. 같은 개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나무와 꽃 등이 결정되면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괜찮다.

○ 김문홍

- 상징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 식물전문가에게 식물만 질문하였는가? 비전문가의 집합체가 전문가의 의견으로 바뀐 것은 아닌가? 오늘 이렇게 논의하지만 상징물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차가 매우 많다.
- 전문가 조사에서 제주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 분석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인지성(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고유성·독창성(제주도에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인가?), 아름다움의 수준, 관리의 난이도, 풍부성, 유익한가 해로운가, 주변산업에의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평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중·하'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하'에 해당하는 응답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하도록 한다. 개인차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도민들의 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다.

○ 소인섭

- 제주 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하여 김문홍 교수와 의견을 같이 한다.
- 상징물 선정과 관련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전문가와 상징물 자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학자간에 상호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강민수

- 상징물로 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 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오성찬 선생의 동물 부문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루의 경우 도민의 고유문화나 도민과의 친근감 측면에서 조랑말보다 뒤진다. 도민과의 동고 동락을 논할 때 노루는 조랑말에 결코 대비될 수 없다.
-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노루를 생각할 수 있으나 겁이 많은 동물로 사람

을 피하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그리고 노루는 제주도도 아니더라도 많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다. 최근 도내 사슴 농장에서 이탈한 노루와 사슴의 잡종이 출현하는 등 순수성 측면에서도 의문점이 많다. 작년도에는 번식이 과다 번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요소도 일어나고 있다.

- 말은 1년중 언제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다. 경마, 승마, 마차 등 활용 측면이 매우 넓다. 체격이 비록 왜소하지만 힘이 세고 지구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영리한 동물이다. 그리고 조랑말은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이며, 향토사의 중심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살아 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 347호('84. 2)로 지정된 것은 오골계, 진돗개 다음 세 번째로 혈통 동물자원 보전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말의 산지인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마 필요 두수의 80%까지 제주도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

#### ○ 강태숙

- 먼저 조랑말의 표현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몽골에서도 조랑말은 과소하다는 등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는 말이다. 그간 학회 등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제주마'로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관공서에서도 '제주마'로 부르고 있다. (참가자 들 '제주마'로 부르는데 동의함)
- 미국 위스칸신주의 경우 상징 동물을 가축과 야생동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먼저 가축으로 정할 것인지, 야생 동물로 할 것인지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가축으로 정할 경우 제주마가 적합할 것이고 다른 것이 있다면 흑한우도 무방하다. 또한 야생동물을 정할 경우 노루나 사슴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제주도에 있는 토종으로 제주말, 재래견, 흑한우, 토종닭 등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전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양중해

- 상징물을 선정하는 경우에 산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이 쇠퇴할 경우 그 대상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 제주상징물이 가져야 할 특성 중 도민 정서와 일치되는 것이 선정되었으면 한다. 결국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가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공모, 전문가 조사에서 상위에 속한 것 중 지정되어서는 곤란한 것을 제외할 경우 선택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 예를 들면 감귤나무는 어느 시기에는 없어질 수 있다. 물론 현재 볼 수 없다고 하여도 가슴속에 있는 것은 상징물이 될 수 있다.
- 녹나무는 향기도 좋고, 강인한 나무라고 생각한다. 삼성혈에도 다른 나무는 다 죽었지만 녹나무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귀신이 안 들어 온다'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희귀하지만 관심이 많은 나무였다. 일본에서도 이 나무를 귀중한 나무라고 하고 있다. 계수나무와 비슷한 속성을 가졌다고 본다. 재목으로 사용하여도 충이 없으므로 용도가 매우 넓다.
- 꽃 가운데 유채꽃은 재배하는 것이며, 또한 산업과 관련이 있고 가슴속에 남을 만한 것도 아니다. 한란은 희귀성 때문에 도채 위험이 있지만 향기, 자태 등은 군자와 같이 가슴속에 남을 수 있으며 제주의 상징으로 충분하다.
- 새를 선정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참새는 경박하므로 제외시켜야 한다.
- 조랑말은 적절하지 않은 용어라고 본다. 조랑이란 의미는 작고 보잘것 없는 뜻이며, 말의 이름에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강태숙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제주마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대학에서 상징물을 정할 때에도 말이 대두되었는데 말은 제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몽고가 제주를 지배할 때에 도입된 것이다.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주대학에서 사람이 아닌 말을 키울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어 제외된 바 있다. 실제 한라산을 돌아가면서 군마를 길렀다. 감목관이 제주에

서는 말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만일 말이 부족할 경우에 민간의 말을 빼앗아 보충하였다. 제주목사는 말을 잘 길러 진상하고 승진의 발판으로 삼았다. 어떤 목사는 백족마(白足馬)를 진상하지 못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다. 제주에 있어서 말은 고통의 역사를 안고 있는 동물이다. 말은 천연기념물로 경마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논의의 대상으로 도민공모, 전문가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느라 고생이 많았으며 매우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 ○ 박행신

- 나무중에는 양중해 원장님이 말씀하신 녹나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강인하고 향기로운 것은 도민의 정서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 꽃은 한란을 추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새중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평일 수 있으나 수렵대상이고 식용으로 쓰이는 것을 상징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제주도에서 제주큰오색딱따구리를 정한 것은 희귀성도 있고 귀하니까 보존해야겠다는 뜻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1915년에 일본의 구로다가 제주에서 처음 발견하여 제기하였다. 주말 등을 이용하여 산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산행 중에 관심을 가질 경우 나무 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른 새들은 번식을 위해 둥우리를 지을 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나 풀들은 이용한다. 그러나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강인한 부리로 높은 고목을 무려 1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끈기 있게 쪼아 둥우리를 완성시키고 그 속에서 알을 낳는다. 이는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노력과 자식이 성장하기 까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주큰오색딱따구리만이 갖고 있는 생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제주도민들이 그 옛날 어려웠을 때 강인한 정신으로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출세시키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큰오색 딱따구리의 끈기와 개척정신은 제주도민의 생활력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점이 많으므로 제주도를 상징하는 새로 정함이 타당하다. 그 외의 새들은 도민의 생활과 연결시켜 설명할 만한 새가 없다. 비록 제주큰오색 딱따구리가 도민들이 잘 모르는 새라고 하나 지정한 후 홍보를 통하여 인식시킬 수 있으며,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보아 오던 것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 색은 녹색이 적절하다.
- 동물은 가축보다는 야생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김한욱

- 전문가 포럼을 위하여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었구나 생각한다.
- 상징물을 지정할 때도 그리고 변경할 때도 그 시기에는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었다.
-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문가의 전문적 자문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도민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보편적이면서도 타당한 의견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의 시내버스 색상이 전문가에 의해 보라색 계통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나 서울시민들의 거부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후 6개월여만에 바꾸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6개 광역시 사례와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중복성 문제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 홍순만

- 나무 선정에서 가치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제주도는 운명적으로 바람을 타고 난 섬이다. 겨울 계절풍, 태풍 등



제주인이 시련을 겪은 것은 바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의 문화현상에서 바람을 제외할 수 없다. 바람의 세기를 최소화하고 막아준 것은 나무와 돌이다. 취락을 만들 때 내풍력이 강한 나무로 숲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돌담을 쌓아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제주의 상징나무는 바람에 견디는 나무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녹나무는 제외되어야 한다. 느티나무는 적절하다. 감귤나무도 산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적 가치가 저하되면서 경쟁력은 저하될지 모르나 감귤나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벚나무도 제주도가 자생지가 확인되었으므로 좋다. 동백나무와 팽나무는 제주도의 상징적 나무이다. 팽나무는 바람의 저항과 관련이 있다. 마을의 숲, 정자나무로 이용되어 왔다. 제주의 문화에 괴리되는 나무, 녹나무는 거친 땅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나무이며, 이러한 나무는 상징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주참꽃, 철쭉도 좋다. 어는 것이 제주인과 관련이 깊으니까 중요하다. 유채꽃은 생산가치가 없어질 때 쉽게 볼 수 있겠는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한란이나 수선화는 상징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새에 대하여 박행신 교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도민과 유리된 새는 상징새로 할 수 없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새를 정해야 하는데 꿩이나 갈매기는 적절하지만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적절하지 않다.
- 색은 아무래도 추상적이다. 구태여 상징색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 동물은 노루, 조랑말, 백록 모두 괜찮다. 제주마의 용어 사용은 적절하다고 본다.

#### ○ 김문홍

- 느티나무도 녹나무만큼 바람에 약하다. 서귀포시 도순동에 녹나무 자생지가 있는데 결코 바람이 적은 곳이 아닌데도 성장에 괜찮다. 다른 나무는 약을 쳐야 하지만 녹나무는 필요없다. 녹나무에는 벌레가 없다. 느티

나무는 초가을에 잎이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다. 느티나무보다는 녹나무가 연중 푸르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을 것이다. 왜 녹나무 거리는 없는지 모르겠다. 왕벚나무 거리는 50년 이상 갈 수 없다. 녹나무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란다. 녹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

- 꽃인 경우에는 나무보다는 초본류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미 상징나무가 있기 때문에 꽃은 나무가 아닌 초본류가 적절하며 한란, 수선화 등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 황경수

- 제주도의 경우 나무나 꽃을 정하는 경우 오히려 식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상징 나무로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한편, 제주하면 떠오르는 나무를 상징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제주군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비자림은 300~800년된 비자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으며, 전문가들도 단일림으로는 규모가 큰 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진상품이었던 점, 민간의 음식이나 약재로 활용되었던 점, 고급가구나 최고급 바둑판 재료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 파란색이 차가운 계통의 색이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남국의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 특성과 인정이 많은 도민을 생각할 때 차가운 계통의 파란색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 박행신

-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출판물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도민과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거둬 이야기하지만 꾀은 수렵대상이기 때문에 곤란

하다. 조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본다. 동박새를 거론하지  
만 연약하고 왜소하다.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제주도에 토종화된 것이며  
그래서 아종으로 정해진 것이다.

○ **홍순만**

- 녹나무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 문화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생명력이다. 오랜 연륜에 대하여 가치를 지정할 때 우리나라는 19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녹나무가 바람이 많은 곳, 바위틈에서 자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녹나무의 껍질을 벗겨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 **김문홍**

- 명이동에도 녹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토심이 얇은 바위틈에서도, 바람이 많은 곳에서도 잘 자란다.
- 예전부터 쾌를 만드는 등 용도가 많았으나 전국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상징나무로 정하고 있는 느티나무를 구태여 새로운 상징나무로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 **강민수**

- 백록은 실존 동물이 아니다. 그리고 노루는 전국에 많이 분포하는 동물로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다.
- 최근에는 '말은 제주로, 사람도 제주로'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한다. 아무튼 제주도는 말을 키우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그리고 과거에 암울했던 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과거를 망각하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발전적 측면에서 이런 요소를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 이문교

- 오랜 시간 진지하게 논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토론 결과를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준 방법으로 각 부문별 1, 2, 3순위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기입하여 제출해 주시면 이를 점수화하여 통계처리하고 상위 대상 상징물을 선정하겠습니다.
-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도민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제해야 할 요소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참석자 동의)
- 이상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주도에 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인터넷 조사 내용

제주도 상징물에 대한 도민의 의견 조사

(기간 : 2000. 5. 1 ~ 5. 31)

현재까지 결과보기

다음 상징대상물 중 제주상징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상징대상물		선택사유	
나무	그림보기 ○ 녹나무 ○ 느티나무 ○ 비자나무	○ 도민과의 친근성 ○ 역사성 ○ 독특하다	○ 도민정서와 일치 ○ 주변에 많다 ○ 관광자원
꽃	그림보기 ○ 수선화 ○ 참꽃 ○ 한란	○ 도민과의 친근성 ○ 역사성 ○ 독특하다	○ 도민정서와 일치 ○ 주변에 많다 ○ 관광자원
새	그림보기 ○ 꿩 ○ 동박새 ○ 제주큰오색딱따구리	○ 도민과의 친근성 ○ 역사성 ○ 독특하다	○ 도민정서와 일치 ○ 주변에 많다 ○ 관광자원
색	그림보기 ○ 노란색 ○ 녹색 ○ 파란색	○ 도민과의 친근성 ○ 역사성 ○ 독특하다	○ 도민정서와 일치 ○ 주변에 많다 ○ 관광자원
동물	그림보기 ○ 노루 ○ 백록 ○ 제주말	○ 도민과의 친근성 ○ 역사성 ○ 독특하다	○ 도민정서와 일치 ○ 주변에 많다 ○ 관광자원

(결과 보기)

창단기

총투표자수 :       명

구분	대상	선택비율	사유					
			도민과의 친근성	도민정서와 일치	역사성	주변에 많다	독특하다	관광자원
나무	녹나무							
	느티나무							
	비자나무							
꽃	수선화							
	참꽃							
	한란							
새	평							
	동박새							
	큰오색딱따구리							
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동물	노루							
	백록							
	제주말							

주) '선택 비율'은 '막대그래프(응답건수, 비율)'을 나타냄.

'사유'에는 해당 항목별 응답건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음.

## 부록 5

### 상위 3순위 대상 상징물 해설<sup>23)</sup>

#### □ 나 무

##### ○ 녹 나 무(현 상징나무)

##### • 주요 특성

- 녹나무과이며 원산지는 제주도와 중국, 인도 등임.
- 높이 20m 까지 자라는 상록 교목으로 최고 지름은 2m에 달함.
- 수피는 암갈색으로 세로로 깊게 패이며, 어린가지는 황록색이며 윤기가 나고 피목이 있음.
- 잎은 호생하며 얇은 혁질이고 자르면 향기가 있으며 난형 또는 타원형임.
- 가지, 잎, 수피를 방바닥에 깔고 소생하기 어려운 중병 환자를 눕힌 다음 뜸질을 시키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 옛부터 치료에 사용함.
- 서귀포시 도순동에 녹나무 자생지 군락지가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됨.
- 나무의 주 용도는 건축재나 가구재로 쓰임.
- 집근처에 심으면 제사에 조상의 혼이 오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어 집 근처에는 심지 않았는데 키가 크기 때문에 초가집 근처에는 부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 상징물선정심사위원 1차 심사에서 구상나무와 함께 선정된 후 최종심사에서 상징나무로 선정됨.
- '96년 도민 공모에서 상위 6위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징물지정심

23) 도민 공모, 전문가 의견 조사, 전문가 포럼, 인터넷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한 상위 3순위 대상 상징물 중 각 부문별로 가장 바람직한 상징물로 정한 것은 본문에 기술하였으며,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한 각 부문별 2개 안에 대하여 주요 특성, 심사 경위, 긍정적 의견, 부정적 의견을 기술하였음.

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왕벚나무, 구상나무에 이어 3순위에 녹나무가 포함됨.

- '96년 상징물심의위원회 1차 심의 결과 녹나무는 도민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함.
- '96년 상징물선정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 및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기존에 지정된 녹나무를 그대로 지정함.
- '99년 본 연구의 도민 공모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3위, 전문가 포럼에서 1위 인터넷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함.

• 긍정적 의견

- 상록수로서 향기도 좋고, 강하며, 벌레가 없으므로 재목으로서의 용도도 다양함.
- 수명이 길며, 약재 살포가 필요없음.

• 부정적 의견

- 매우 한정된 곳에 자생하므로 도민에게 친숙하지 못함.
- 약재로 쓰기 위해 껍질을 벗겨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바람에 잘 부러지기 때문에 제주인의 강인함과 일치하지 않음.
- '귀신이 안 들어온다'에서 알 수 있듯이 희귀하지만 도민이 기피하는 나무임.

○ 감귤나무

• 주요 특성

- 영년생(永年生) 작물로서 수확시기가 길며 토양, 기후, 관리 및 재배 기술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짐.
- 다양한 품종이 있으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품종 변화가 많고, 병충해에 약함.



-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따뜻한 지방인 제주도에 대량재배되고 있음.
  - 영주 10경의 하나인 굴림추색으로 유명함
  - 우리나라에서 감귤재배는 3한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본고장은 제주도임.
  - 고려사에서 고려 문종 6년(1052년)에 탐라국에서 해마다 세공하는 귤의 정량을 1백포로 개정하여 항구적인 규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음.
  - 조선조에 들어 제주감귤은 주요 세공품으로 관리되었음.
  - '98년 현재 감귤재배 현황은 36,212 농가에서 25,860헥타를 재배하여 543,000 여톤을 생산하고 5,158억원의 수익을 올림.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 도민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음.
    - '96년 도민 공모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상위 3순위에서 제외되어 도민 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 등에서 거론되지 못함.
    - '99년 도민 공모에서 1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전문가 포럼 결과 상위 3순위에서 제외됨.
- 긍정적 의견
    - 지역의 생명산업이며, 재배농가가 많고, 많은 면적에 재배하고 있어 도민과 친숙함.
    - 제주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해왔으며, 제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큼.
- 부정적 의견
    - 산업 작물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폐원 등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병충해에 약하고, 다품종으로 소비자 수요에 따라 품종 갱신이 빈번함.

## □ 꽃

### ○ 참 꽃(현 상징꽃)

#### • 주요 특성

- 진달래과에 속하는 목본류로 제주참꽃나무, 신달위라고도 함.
- 제주도 한라산의 해발 1,100m 이하의 낙엽활엽수림대를 비롯하여 5.16도로변 선돌계곡 주변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일본에도 분포함.
- 높이 3~6m에 달하고 가지는 넓게 퍼지며 자라고, 잎의 길이는 3.5~8cm의 넓은 난형으로 가지 끝에 2~3매씩 달리며, 개화기는 5월로 선명한 주홍색 꽃이 잎과 동시에 개화함.
- 꽃이 아름답고 진달래과 식물중 대형에 속하므로 조경용수로 기대되는 식물임.

####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 영산홍이란 이름으로 정함.
- '89년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회에서 기존의 상징물인 영산홍을 제주한란으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음.
- '96년 기존 상징물에 대한 도민 공모에서 상위 6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도민 의견 조사,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도정조정위원회 및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영산홍」을 표준어인 「참꽃」으로 수정하여 조정함.
- '99년 도민 공모에서 3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1위, 전문가 포럼에서 3위, 인터넷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정적 의견
  - 참꽃은 목본류이므로 상징꽃은 초본류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징나무가 별도로 선정되므로 참꽃을 선정하면 나무를 이종으로 선정하게 됨.
  - 진달래, 철쭉과의 구분이 애매함.
  
- 유채꽃
  - 주요 특성
    - 십자화과에 속하며 스칸디나 반도에서 시베리아 및 코카서스 지방에 걸쳐 분포하는 2년생 식물임.
    - 높이 1m 정도 자라며 원줄기 하나에 15개 내외의 1차 분지가 발생하고 다시 2-4개의 2차 분지가 발생하여 줄기 끝에 총상화서가 달리기 때문에 많은 꽃이 개화함.
    - 꽃은 4월에 피고 노란색이며 꽃잎은 길이 1cm 정도로서 끝이 둥근 도란형이며, 종자에 유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주로 기름을 목적으로 재배함.
    - 유채의 기름은 식용으로서 샐러드, 튀김용, 마가린, 버터, 과자 제조 등에 쓰이며, 의학 및 공업용으로는 강철담금유, 인조고무, 비누, 인쇄잉크, 화장품 제조 등에 쓰임.
    - 어린잎과 줄기는 채소로 이용되며, 기름을 짠 깻묵은 비료로 이용됨.
    - 제주도에 도입된 것은 서귀포시 출신 김남운씨가 1943년 일본에서 종자 1홉을 가져와 증식 보급한 것이 시초라고 함(제주일보, '99. 4. 15).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음.
  - '96년 기존 상징물에 대한 도민 공모,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도민 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나 도정조정위원회 및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원예 작물이기 때문에 상징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음.
  - '99년 도민 공모에서 1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나 전문가 포럼에서는 산업적 요소가 있는 원예작물이라는 이유로 상징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긍정적 의견
  -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한 작물이며, 도민에게 정감이 가는 꽃임.
  - 매년 유채꽃 잔치를 개최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고, 홍보 효과도 높음.
  
- 부정적 의견
  - 원예작물로 재배하는 것이며, 산업과 관련이 있어 사라질 수 있음.

## □ 새

- 제주큰오색딱따구리(현 상징새)
  - 주요 특성<sup>24)</sup>
    - 딱따구리목 딱따구리과에 속하며, 몸길이 25cm, 균일한 검은색 등과 눈에 띄는 흰색 허리에 의하여 오색딱따구리와 구별됨.
    - 날개에는 흰색 가로띠가 있고 어깨의 흰색 반점이 없고, 수컷은 머리 꼭대기 전체가 진홍색이고 암컷은 암색임.
    - 울창한 산지 침엽수림에 주로 살며 겨울에는 저지대로 이동함.
    - 낙엽활엽수림 또는 아고산대의 침엽활엽 혼효림 속의 나무 줄기에 자

24) 큰오색딱따구리에 대한 기술임.

신이 뚫은 구멍을 등지로 하며 그 속에 산란함.

-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텃새임.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 다른 부문은 공모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으나, 새는 상징물선정심의위원회에서 큰오색딱따구리로 결정함.

- '89년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회에서 기존의 상징물인 큰오색딱따구리를 꿩으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음.

- '96년 도민 공모에서 상위 6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및 도민 의견 조사와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음.

- '96년 상징물 선정을 위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도민들이 쉽게 볼 수 없으나 한라산 어리목, 관음사 등지에서 볼 수 있고, 제주도의 텃새이므로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기존 상징물인 큰오색딱따구리를 학명에 맞게 제주큰오색딱따구리로 수정하기로 결정함.

- '99년 도민공모에서 1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2위, 전문가 포럼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인터넷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함.

• 긍정적 의견

- 희귀성도 있고 귀한 새임.

- 나무를 쪼아 등지를 만들고, 그 속에 알을 낳는 생태적 특징은 도민의 강인한 정신과 끈기와 개척정신과 견줄만 함.

- 제주큰오색딱따구리는 제주도에 토종화된 것이며, 큰오색딱따구리의 아종으로 정함.

- 부정적 의견
  - 쉽게 볼 수 없고, 제주인의 문화·생활과 동떨어져 있음.
  - 번식력이 약함.
  - 제주도 상징물 변경 결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상징성이 약한 것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임.
  -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을 상징물로 정할 수는 없음.

○ 꿩

- 주요 특성
  - 닭목 꿩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의 산야에 서식하는 꿩은 대륙 콜치커스계의 꿩으로 아름답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함.
  - 우리나라 조류 가운데 두루미, 까치<sup>25)</sup>, 황새, 백로, 소쩍새 등과 함께 아름다운 새에 속함.
  - 꿩이란 말은 그 울음소리 때문에 정해진 것으로 뜸부기, 삿꾸기, 소쩍새 등도 울음소리로 인해 정해진 것임.
  - 번식기를 제외하고는 무리지어 생활함.
  - 꿩은 대형 조류로 한국꿩, 금계, 은계, 금은계, 백한 및 긴꼬리꿩 등으로 분류되며 세계 각지에 180여종이 분포함.
  - 장끼는 목에 폭이 넓은 흰테가 있는데 가슴 안쪽에는 끈겨져 있고 머리 위는 올리브 갈색이며, 흰테로부터 위로는 남록색이지만 아래는 황색과 적자색임.
  - 꿩은 빛이 없으나 깃털이 있어 보기에 더 아름답음.

---

25) 까치는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상징 새로 지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할 경우 많은 자치단체에서 상징 새로 지정하고 있다. 까치는 과거 길조이며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얘기와 함께 사람과 친숙한 조류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까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의 폐단이 발생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상징물인 까치를 바꾸려 하고 있고, 까치 1마리당 일정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까치를 포획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징물 지정은 미래의 상황까지도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꿩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집단으로 서식함..
- 꿩에 얽힌 이야기는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해마다 정월에 흰꿩을 진상했다는 얘기와 치악산 상원사의 창건과 관련된 보은의 종 이야기 등이 있음.

- 심사 경위

- 꿩은 '73년 상징물 지정 당시 도민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되지 않았음.
- '89년 도정자문위원회 관광개발분과위원회에서 큰오색딱따구리를 꿩으로 변경하자는 건의가 있었음.
- '96년 상징물 선정 도민 공모에서 1위,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도민의견 조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으나 도정조정위원회 및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수렴대상이고, 미식가의 식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음.
- '99년 도민 공모에서 2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1위, 전문가 포럼에서 2위, 인터넷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함.

- 긍정적 의견

- 특별한 긍정적 의견은 없었음.

- 부정적 의견

- 수렴대상이고 식용으로 쓰임.

## □ 색

- 파란색(현 상징색)

- 주요 특성

- 파장의 짧고 물, 하늘, 얼음 등을 암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차갑게 느낌.
  - 파랑은 모성에 같은 따스함과 이해심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파랑은 황량하고 무정한 일상생활로부터 도피시켜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숙고, 반성, 보수주의를 상징함.
  - 파란색은 가장 차가운 색으로 진정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심신의 회복력을 높여주고, 악몽을 경감시켜 주며 신경질적 증상을 가라앉혀 주는 등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함.
  - 파란색은 초점이 잘 잡히지 않는 색이므로 광원의 색으로는 적당하지 못하며 또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즉 시선을 집중시키는 색이 아니므로 거의 모든 방식으로 변색시켜 쓸 수 있음.
  - 파란색이 어두 침침한 빛과 어울리면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애호하고 있음.
  - 파란색으로 포장한 제품은 중국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준다고 느끼며, 신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은혜가 없는 색채라고 믿음.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색으로 지정됨.
    - '96년 도민 공모 및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였으나 도민 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였고,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그대로 지정함.
    - '99년 도민공모에서 2위, 전문가 의견 조사 및 전문가 포럼에서 2위, 인터넷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녹색과 같은 계통의 색임.
    - 제주에서는 바다, 하늘의 상징색으로 거론되고 있음



- 부정적 의견
  - 차가운 느낌을 주는 색으로 남국의 정취 및 인심 좋은 제주의 전통성에 배치되는 색임
- 노란색
  - 주요 특성
    - 긴 파장의 따뜻한 계통의 색으로 태양이나 불을 암시하기 때문에 따뜻함을 느끼게 함.
    - 황금을 뜻하기도 하지만 질투를 뜻하는 등 극단적인 개념이 강한 색채임.
    - 노란색은 명도가 높아 안전표지판 등에 쓰이는데, 동일 크기의 물체 중에서 가장 크게 보여 안전색이라고도 함.
    - 망막에 뚜렷한 상을 맺게 하며 상쾌하고 찬란하다는 느낌을 줌.
    - 심리적인 고민에 호소하므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됨.
    - 고대 이집트인이나 마야인은 살아가는 힘을 가진 태양의 신으로서 노란색을 숭배하였음.
    - 중국에서는 적색 다음으로 선호하는 색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회교군주의 황제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노란색의 복장을 입지 않음.
  - 심사 경위
    - '73년 제주도 상징물 지정 당시에는 거론되지 않았음.
    - '96년 도민 공모에서 및 상징물지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였고, 도민 의견 조사 및 공무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각각 2위를 차지하였음.
    - '99년 도민 공모에서 3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3위, 전문가 포럼에서 4위, 인터넷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별도의 긍정적인 의견은 없었음.
- 부정적 의견
  -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극명한 색으로 상징색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 동물

### ○ 노 루

- 주요 특성
  - 소목 사슴과 노루속에 속함.
  - 높은 산 또는 야산의 산림 지대에 서식하며 주로 음지를 선택하여 서식하는 특성이 있음. 겨울에는 눈 위에서 자기도 하는데 이처럼 음지나 한지에서 서식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노루 등에 서식하는 등애의 유충에 의한 가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임. 곧 온도가 높아지면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가려움을 참기 어려워 음지를 선호함.
  - 주로 연한 풀을 먹고 겨울에는 마른풀이나 나무 순을 먹음.
  - 야행성으로 해 진 뒤나 새벽에 활동함.
  - 우리나라 백두산, 함경북도 및 울릉도를 제외한 전지역에 분포함..
  - 한라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임.
- 심사 경위
  - '99년 도민 공모에서 1위,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1위, 전문가 포럼에서 2위, 인터넷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관광자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음.
  - 쉽게 볼 수 있음.

- 번식력이 강함.

- 부정적 의견

- 도민의 고유 문화나 친근감 측면에서 제주 정서에 부적합함.
- 겁이 많아 사람을 피하기 때문에 친근감이 약함.
- 노루와 사슴간 잡종이 출현하면서 순수성 측면이 의심스러움.
- 과다 번식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 전국에 많이 분포하는 동물로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쉽게 볼 수 있음.

- 백 록

- 주요 특성

- 소목 사슴과 동물의 총칭으로 전세계에 수많은 종의 사슴이 분포함.
- 수컷의 뿔은 여러 개의 가지로 갈라져서 매우 아름답음.
- 우제목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수컷에게만 뿔이 있으며, 매년 머리에 새로 뿔이 자라고 여러 갈래로 가지를 칩.
- 뿔은 자라는 동안 융과 같이 보드라운 털로 덮인 피부로 싸여있는데, 이러한 뿔을 낭각이라고 하며 보약으로 쓰임.
- 1992년 한 시민이 물장오름에 꽃사슴을 방목한 바 있음.
- 조선왕조실록에 정조 10년에 제주목사로부터 백록 1마리를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음.
- 한라산에 백록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한라산 정상 호수는 백록담으로 명명되어 있음.

- 심사 경위

- '99년 도민 공모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3위, 전문가 포럼에서 3위, 인터넷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였음.

- 긍정적 의견
  - 별도의 긍정적인 의견은 없음.
  
- 부정적 의견
  - 한라산에서 백록이 서식했던 학술적 근거가 약하고 실제로 한라산에 서식하는 백록이 전래되어 오지 않았음.

## 부록 6

### 자치단체의 상징물 사례 조사

#### 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상징물

##### 1) 특 성

###### 가) 중복성

###### ○ 나무

- 국내 1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무를 상징물로 정하고 있음(부산광역시만 유일하게 상징나무를 정하고 있지 않음).
- 15개 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나무의 종류는 8종이며, 은행나무(6), 느티나무(3)가 중복되어 있음.

###### ○ 꽃

-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정하고 있음.
- 상징물로 정하고 있는 꽃의 종류는 10종이며, 개나리(2), 동백(2), 철쭉(2), 백목련(2), 장미(2), 백일홍(2)이 중복되어 있음.

###### ○ 새

-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정하고 있음.
- 상징물로 정하고 있는 새의 종류는 11종이며, 까치(4), 비둘기(2), 백로(2)가 중복되어 있음.

###### ○ 색

-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음.

○ 동물

-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는 각각 도어(道魚)를 정함.

< 광역자치단체의 상징물 지정 현황 >

구 분	나무	꽃	새	색	물고기
제 주 도	녹 나 무	참 꽃	제주큰오색딱따구리	파 란 색	-
서울특별시	은행나무	개 나 리	까 치	-	-
부산광역시	-	동 백 꽃	갈 매 기	-	-
대구광역시	전 나 무	목 련	독 수 리	-	-
광주광역시	은행나무	철 쪽	비 들 기	-	-
대전광역시	소 나 무	백 목 련	까 치	-	-
인천광역시	목 백 합	장 미	두 루 미	-	-
울산광역시	은행나무	배 꽃	백 로	-	-
경 기 도	은행나무	개 나 리	비 들 기	-	-
강 원 도	잣 나 무	철 쪽	빠 꾸 기	-	-
충 청 북 도	느티나무	백 목 련	까 치	-	-
충 청 남 도	능수버들	국 화	원 앙	-	-
경 상 북 도	느티나무	백 일 홍	왜 가 리	-	-
경 상 남 도	느티나무	장 미	백 로	-	불 락
전 라 북 도	은행나무	백 일 홍	까 치	-	-
전 라 남 도	은행나무	동 백 꽃	산비둘기	-	참 돔

나) 활 용

○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

- 열린 도정, 사이버 ○○○도 등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道旗(市旗), 마스코트, 캐릭터 등과 함께 상징물 소개.
- 상징물 사진과 함께 상징물을 통하여 추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 자치단체 발간 책자에 소개

-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여러 종류의 홍보물, 특히 통계 연보에 상징물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낮음.
- 상징물 사진과 함께 내용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상징물 지정 날짜를 함께 표기하고 있음.

- 나무, 꽃, 새 중 어느 하나나 전체를 발간물의 표지(또는 속표지) 그림 등에 활용함.

## 2) 상징물 지정 배경

### ○ 나무

- 대상 상징물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기질·정신을 고양하고, 나무의 특성 및 아름다움과 지역 이미지와의 연계,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순으로 상징 나무를 선정하고 있음.
- 대상 나무가 갖는 이미지중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나무 자체가 갖는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물로 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 꽃

- 대상 상징물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기질·정신을 고양하고, 꽃의 아름다움과 특성, 자생지 또는 지역에 많다는 이유 등의 순으로 상징 꽃을 선정하고 있음.
- 지역 주민이 좋아한다거나 활용 가치, 대상물이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상징 꽃을 선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 새

- 새를 선정하는 주요 이유는 그 새의 특성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 지역 주민의 기질과 정신을 대신 표현하기 위하여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데 활용하거나,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이유로 선정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광역자치단체의 상징물 지정 배경 >

(단위 : 건 수)

지정 배경	내용이 제시된 사례(중복 허용)					
	합계	나무	꽃	새	색	동물
지역 주민의 기질·정신	25	8	11	6	(1)	(2)
대상물의 특성·아름다움	24	7	8	9		(1)
지역의 발전과 번영 기원	12	7	3	2	(1)	
지역내 자생 또는 분포	10	3	4	3		
다양한 가치 활용	9	4	2	3		
지역 주민의 화합도모	8	1	2	5		
대상물의 의미	8	1	2	5		
역사성	5	3	1	1		
애착·사랑의 대상	4		2	2		

주) 색을 정한 곳은 제주도 1곳임.

동물을 정한 곳은 경상남도과 전라남도인데 각각 도어(道魚)를 지정하고 있음.

3). 상징물의 주요 내용<sup>26)</sup>

① 서울특별시

○ 나무 : 은행나무 ('71. 4. 3 지정)

은행나무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시 공해와 병충해에 강해 수명이 긴 나무로 꼽힌다. 거목으로 성장하는 은행나무의 특성은 수도 서울의 무한한 발전을 보여준다.

○ 꽃 : 개나리 ('71. 4.3 지정)

개나리는 서울의 기후와 풍토에 가장 적합한 꽃으로, 이른 봄 일제히 꽃이 피어 서울시민의 협동정신을 표현한다.

26) 여기에 기술하는 내용은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것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 새 : 까치 ('64년부터 사용)

까치는 전래 설화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거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까치는 1964년 나라 새 뽑기 공모에서 압도적 다수로 나라 새에 뽑히기도 했다. 나라와 서울의 새로 뽑힌 까치는 1966년부터 수렵 조수류에서 제외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② 부산광역시

○ 나무 : 동백꽃 ('70. 3. 1 지정)

진녹색 잎과 진홍색 꽃의 조화는 푸른 바다와 사랑이 많은 시민 정신을 그려내고, 싱싱하고 빛이 나는 진녹색 활엽은 시민의 젊음과 의욕을 나타낸다.

○ 꽃 : 갈매기 ('78. 7. 1 지정)

새하얀 날개와 깨끗한 몸은 백의민족을 상징하고, 끈기있게 먼 뱃길을 따라 하늘을 나는 강인함은 부산 시민의 정신을 나타낸다.

③ 대구광역시

○ 나무 : 전나무

강직성, 영원성, 곧게 뻗어가는 시민의 기상

○ 꽃 : 목련

순박, 순결, 희생정신의 시민기질

○ 새 : 독수리

활달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개척자적 시민정신

#### ④ 광주광역시

○ 나무 : 은행나무 ('86. 9. 2 지정)

진화가 되지 않은 수종으로 굳건한 이미지를 주고 독소가 있어 해충이 침범하지 못하는 향토수종이다. 나무는 곧고 수명이 길어 거목으로 성장하므로 광주의 기개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

○ 꽃 : 철쭉 ('86. 9. 2 지정)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 자생하는 꽃으로 은은한 꽃 색깔이 친밀감이 있어 시민들의 선호도가 큼

○ 새 : 비둘기 ('86. 9. 2 지정)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로,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광주시민 의식의 상징

#### ⑤ 대전광역시

○ 나무 : 소나무

소나무는 옛부터 선비정신의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향토수로 민족정기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며, 추위·건조에 강하고 풍치가 매우 아름답다.

○ 꽃 : 백목련

백목련의 꽃말은 우정이다. 백목련은 화사한 봄날, 잎이 나기 전에 탐스런 순백의 꽃을 피우는 꽃 중의 여왕으로 우아하고 품격 높은 시민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 새 : 까치

한국에서 가장 길조로 여겨지는 까치가 대전의 시조이다. "아침

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을 가진 텃새의 일  
종으로 만인에게 아름다움과 경쾌함을 선사하고 있다.

## ⑥ 인천광역시

### ○ 나무 : 목백합

목백합은 튜울립 모양의 꽃이 피는 나무로서 내한성과 병충해에  
특히 강하며 공원수, 가로수로 적합하다. 또한 원산지가 북미지  
역으로 인천지역이 한·미수교 조약체결의 현장이기도 하다.

### ○ 꽃 : 장미

시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장미는 아름다움이 뛰어나 오랫  
동안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오고 있으며, 능동적이고 정열적  
인 인천시민과 꽃말이 주는 의미와도 일치하고 있다.

### ○ 새 : 두루미

인천은 두루미 도래지일 뿐만 아니라 학의 고향으로 송학동, 청  
학동, 선학동, 학익동 등 학을 상징하는 지명이 많고 특히 문학  
동은 인천의 옛 도읍이기도 하다.

## ⑦ 울산광역시

### ○ 나무 : 은행나무 ('95. 1. 1 지정)

곧고 힘차게 자라나는 강직성과 병충해와 공해에 강한 점은 울  
산의 기상을 나타내며 긴 수명은 번영을 상징한다.

### ○ 꽃 : 배꽃 ('95. 1. 1 지정)

우리 조상과 의식을 함께 해온 꽃으로 품위 있고 고결하여 지조  
와 근면을 상징한다.

○ 새 : 백로 ('95. 1. 1 지정)

우아한 기품과 친근감이 있으며 고결한 모습으로 울산인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한다.

⑧ 경기도

○ 나무 : 은행나무

역경에 강인하고 수령이 많은 은행나무의 웅대한 모습은 큰 번영을 뜻하며 양질의 목질과 과실을 맺고 신록과 단풍은 관상수로 손꼽힌다.

○ 꽃 : 개나리

대량으로 자생하면서 번식이 용이하여 큰 번영을 뜻하고 친근, 명랑, 고귀한 빛을 나타낸다.

○ 새 : 비둘기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도민 평화를 통한 조국 평화통일애의 염원을 담고 있다.

⑨ 강원도

○ 나무 : 잣나무 ('78. 6.15 지정)

잣나무는 강원도내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 으뜸가는 나무이며 고산지대 및 한랭한 지방에서 잘 자라는 상록 교목으로 정원수와 건축 자재로 활용된다.

○ 꽃 : 철쭉꽃 ('78. 6.15 지정)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인 철쭉꽃은 강원도의 모든 산에 자생하

는 꽃으로 해마다 5월이면 강원도의 산지를 연분홍색으로 물들여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준다.

○ 새 : 뺨꾸기 ('78. 6.15 지정)

뺨꾸기는 많은 산새 중에서 강원도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새이며 6월에서 8월 하순까지 낮은 숲속 관목지대에서 서식하는 여름새로 독특한 울음소리는 금수강산의 풍년을 기약해 준다.

⑩ 충청북도

○ 나무 : 느티나무 ('78. 2.28 지정)

가식없는 성격과 온화하고 순박한 충북인의 기질을 상징한다.

○ 꽃 : 백목련 ('78. 2.28 지정)

자조·자립·협동의 상징으로 미래지향적 의지를 품은 새 도민상을 상징한다.

○ 새 : 까치 ('78. 2.28 지정)

근면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며 안정을 느끼게 하는 도민의 기질을 상징한다.

⑪ 충청남도

○ 나무 : 능수버들

능수버들은 은유 자적하며 편협하지 않고 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격조 높은 충남인의 성격을 표현한다.

○ 꽃 : 국화

국화의 그윽한 향내음과 꾸밈새 없는 소박한 모습, 강인한 생명력은 지조와 고고한 성품을 자랑으로 여기는 충남인의 표상이다.

○ 새 : 원앙새

원앙새의 기품있고 화목하며 금실좋은 부부애는 충남인의 장점이 화합을 상징한다.

⑫ 경상북도

○ 나무 : 느티나무 ('78. 6.17 지정)

느티나무는 아무 곳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도민의 번영과 적응력을 상징한다. 모든 역경에 강인하고 끈기와 저력을 과시하며 마을 어귀에 정자를 이룬 느티나무는 모임터로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며, 대화의 광장을 마련, 협동총화를 상징한다.

○ 꽃 : 백일홍 ('78. 6.17 지정)

백일홍은 무더위에도 잘 견디는 대표적인 여름 꽃으로 강인한 도민의 기품을 상징하고 척박한 땅에도 잘 생육하는 서민적이며 생활력이 강하므로 도민이 기품을 상징한다. 산야, 마을, 정원 등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자태가 수려하다. 나무 모양도 고상하고 우아하며 도민의 성격과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

○ 새 : 왜가리 ('78. 6.17 지정)

왜가리는 나무가 많은 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로 새 중에서도 몸집이 크고 모양이 품위가 있으며 평화적이어서 용도(雄道) 경복을 상징한다.

⑬ 경상남도

○ 나무 : 느티나무 ('78. 5.13 지정)

늠름한 기풍과 웅자(雄姿)는 도민의 기상을 나타내며 무궁한 번영을 상징한다.

- 꽃 : 장미 ('73. 7.17 지정)  
강인한 도민정신에 정열을 더하여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는 경남의 발전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 새 : 백로 ('78. 6. 9 지정)  
우아하고 고귀한 자태는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며, 청결 강직하고 주체성이 강한 성질은 소박 진실하고 근면한 도민의 기질과 흡사하여 화합 단결된 경남인의 참모습을 상징한다.
- 물고기 : 불락 ('97. 5.31 지정)  
도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는 경남 수산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과 꿈을 상징한다.

⑭ 전라북도

- 나무 : 은행나무 ('77. 10 지정)  
열매는 백과라고도 하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이며, 목재는 우아하고 가공성이 좋아 고급 용재로 수요가 매우 크다.
- 꽃 : 백일홍 ('77. 10 지정)  
꽃잎은 6개로 둥글며 주름살이 많고 꽃이 수려하여 인가나 사찰 주변의 관상수로 널리 식재되었다.
- 새 : 까치 ('77. 10 지정)  
인가 근처의 수목에 집을 짓고 서식하며 산림이나 농작물 해충을 포식하고 희소식을 전해준다는 믿음이 있다.

⑮ 전라남도

○ 나무 : 은행나무 (78. 7. 4 지정)

낙엽침엽성 교목으로 암수나무가 있다. 생장이 빠르고 옮겨심기 쉽고 방화력이 있으며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정자목, 풍치목 등으로 가장 많이 쓰여 전통의 상징이 되어있고 나무가 가구재로 좋다. 우뚝서는 기상, 유용한 쓰임, 전통의 상징성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 꽃 : 동백꽃 (78. 7. 4 지정)

고온 다습성이고 해풍에 강하여 연안 관광 수종으로 좋다. 공해에 강하고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예로부터 전남 선비의 벗, 국내에서 전남지역(강진, 완도, 오동도)에 가장 많은 수림대 형성, 동양적인 나무, 흑한도 이기며 꽃피우는 성질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 새 : 산비둘기 (78. 7. 4 지정)

암·수컷이 평생을 같이 살고 귀소성이 강하다. 번식성이 강하고 암·수컷이 교대로 포란한다. 평화의 상징이며 고기 맛도 좋다. 농사에 나쁜 벌레를 잡아주는 익조이다. 비둘기의 특성을 본받고 자연 사랑의 상징적인 새로 서로 아끼고 보호하는데 있다

○ 물고기 : 참돔 (98. 5.18 지정)

수심 30~150m의 암초지대에 주로 서식한다. 산란기는 4~7월경으로 산란기간 중 30~90회에 걸쳐 여러 번 산란한다. 긴 수명, 힘찬 기상,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함이다.



## 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의 상징물

### 1) 제주시

○ 나무 : 왕벚나무 (97. 1. 15 지정)

맑은 정신을 의미하며 원산지가 제주도이다. 꽃잎은 백색 또는 연한 홍색으로 맑게 보이며 관상목으로 사람마다 즐겨 감상한다.

○ 꽃 : 수선화 (97. 1. 15 지정)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원산지가 제주도이다. 향기가 좋고 꽃 색깔도 연하고 곱다. 들판이나 해안에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

○ 새 : 휘파람새 (97. 1. 15 지정)

끈기를 의미하며 작은 새이지만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압도한다. 야생하는 새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운다.

○ 동물 : 노루 (97. 1. 15 지정)

인과 의를 의미하며 외유내강의 품성을 지닌 야생동물이다. 1부 1처제를 지키며 가족단위로 생활하고 순진·온화하여 착한 느낌을 준다.

### 2) 서귀포시

○ 나무 : 동백나무 (84. 12. 24 지정)

꽃이 아름답고 개화기가 길며 겨울에 개화한다. 화밀이 많아 동박새가 모여드는 조매화이다.

○ 꽃 : 한란 (84. 12. 24 지정)

난과의 다년초로서 꽃 색깔이 다양하고 향기가 은은하며 모습이 고결하다.

- 새 : 동박새 ('84. 12. 24 지정)

색상이 아름답고 행동이 민첩하며 부지런하고 협동심이 매우 강하다.

### 3) 북제주군

- 나무 : 팽나무

조상 전래로부터 마을 어귀 등에 심어서 정자목 등으로 내려오고, 토질의 후박을 가리지 않고 뿌리내려,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성이 있다. 이는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 슬기롭게 살아온 군민의 정신이다.

- 꽃 : 문주란

우리나라에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구좌읍 하도리 '문주란섬')가 있으며, 거친 바다, 세찬 파도와 싸우면서 살아온 섬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

- 새 : 종달새

이른봄 부지런한 농부들에게 신선한 계절 감각을 느끼게 하는 새로 근면한 농부들의 애환과 호흡을 같이하여 온 새이다.

### 4) 남제주군

- 나무 : 구실잣밤나무

상록수로서 수형의 아름다움과 울창함은 쾌적한 분위기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 꽃 : 철쭉

거친 기후에도 잘 자라는 군민의 개척정신과 인내심을 나타내며 다섯 개의 꽃잎은 5개 읍·면, 꽃 색깔은 군민의 온화한 정신을 상징한다.

○ 새 : 갈매기

바다의 기상 상황을 어부들에게 알려주고, 나래를 펴고 떼를 지어 나는 모습은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화합정신을 상징한다.

<제주도 및 4개 시·군의 상징물>

구분	나무	꽃	새	색	동물
제주도	녹나무	참꽃	제주큰오색 딱따구리	파란색	-
제주시	왕벚나무	수선화	휘파람새	-	노루
서귀포시	동백나무	한란	동박새	-	-
북제주군	팽나무	문주란	종달새	-	-
남제주군	구실잣밤나무	철쭉	갈매기	-	-

## 다. 외국의 사례

### 1) 미국 위스칸신주

- 미국 위스칸신주의 경우 매우 다양한 상징물을 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 상징물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 이미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실용적 측면이 강하다.
- 위스칸신주의 상징물은 다음과 같음(15종).
  - 새 : 개똥지빠귀(Robin, STATE BIRD)
  - 야생동물 : 흰꼬리 사슴(White-tailed Deer, STATE WILDLIFE ANIMAL)
  - 가축동물 : 젓소(Guernsey, Holstein-Friesian, STATE DOMESTICATED ANIMAL)
  - 토양 : Antigo Silt Loam(STATE SOIL)
  - 음료 : 우유(Milk, STATE BEVERAGE)

- 곤 충 : 꿀벌(Honey Bee, STATE INSECT)
- 평화상징 : 북미산 야생 비둘기(Mourning Dove, SYMBOL OF PEACE)
- 암 석 : 화강암(Granite, STATE ROCK)
- 광 물 : 방연광(Galena, STATE MINERAL)
- 화 석 : 삼엽충(Trilobite, STATE FOSSIL)
- 개 : 스파니엘(American Water Spaniel, STATE DOG)<sup>27)</sup>
- 동 물 : 오소리(Badger, STATE ANIMAL)
- 물 고 기 : 강꼬치(Muskellunge, STATE FISH)
- 나 무 : 단풍나무(Sugar Maple, STATE TREE)
- 꽃 : 제비꽃(Wood Violet, STATE FLOWER)

## 2) 일본 후쿠오카시

- 일본 후쿠오카시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나무, 꽃, 새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다.
- 후쿠오카시의 市章, 각구의 심벌마크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상징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없이 상징물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
  - 나무 : 녹나무
  - 꽃 : 산다화
  - 새 : 붉은부리 갈매기

---

27) 애완용 개의 일종